

# 자본주의 개론

도서출판 리버티에서 낸 역사

《경제 모형과 방법론》

《공공선택론 입문》

《미국의 외교 문제: 간결한 역사》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불균형, 기업이 정신 그리고 발견》

《자유주의와 연고주의: 대항하는 두 정치 경제 체제》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입문》

《대도시 지역의 공공경제: 공공선택 접근법》

《자유 사회의 기초》

《초보자를 위한 자유의 길잡이》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축약된 국부론》

《자유 101》

《공공 정책과 삶의 질: 시장 유인 대 정부 계획》

《번영의 생산: 시장 과정의 작동의 탐구》

《애덤 스미스 입문》

《공공선택론 고급 개론》

《아인 랜드 개론》

《시장의 재도입: 시장 자유주의의 정치적 부활》

# 자본주의 개론

에이먼 버틀러 지음 · 황수연 옮김

도서출판 리버티

# 자본주의 개론

지은이 **에이먼 버틀러**  
옮긴이 **황수연**  
펴낸이 **구자춘**

초판 1쇄 펴낸날 2020년 4월 15일

도서출판 리버티  
48075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182, 103-404  
전화 (051) 701-0122 / 팩스 (051) 918-0177  
출판등록 2013년 1월 10일 제333-2013-000001호  
전자우편 jachoon2@hanmail.net

Liberty Publishing House  
182 Yangwoon-ro, 103-404, Haeundae-gu, Busan 48075, Republic of Korea  
Phone 82 51 701 0122  
email jachoon2@hanmail.net

© 도서출판 리버티 2020

An Introduction to Capitalism by Eamonn Butler  
First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in 2018  
Copyright ©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18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20 by Liberty Publishing House  
Translated by Sooyoun Hwang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Westminster,  
London, UK.  
Reprint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한국어 판권은 저작권자인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계약한  
도서출판 리버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8766-19-1 (03300)

# 차례

• *지은이에 대해* ..... 10

## 1 서론 ..... 13

이 책의 주제 ..... 13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 ..... 13

이 책의 대상 독자 ..... 14

자본주의와 저자 ..... 15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 방식 ..... 15

## 2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 17

현실과 잘못된 생각들 ..... 17

자본주의의 비방 ..... 18

정의(定義)의 문제들 ..... 20

자본주의의 더 넓은 관련들 ..... 21

자본주의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 23

자본주의에 고유하지 않은 것들 ..... 24

자본주의 정의하기 ..... 27

### 3 자본이란 무엇인가 ..... 30

자본의 개념 ..... 30

자본의 목적 ..... 30

자본은 어떻게 생산성을 증대하는가 ..... 31

전통적인 자본 관념들 ..... 33

가장 중요한 자본 형태 ..... 36

체계 하부 구조 ..... 38

법적 및 문화적 자본 ..... 40

결론 ..... 43

### 4 자본은 어떻게 창출되는가 ..... 44

자본 취득에 관한 잘못된 견해들 ..... 44

자본은 유지하기 쉽지 않다 ..... 46

자본은 인간 평가에 달려 있다 ..... 52

자본의 진정한 기원 ..... 53

자본과 강제 ..... 54

### 5 자본 구조는 왜 결정적인가 ..... 56

생산재들의 망 ..... 57

자본 구조의 취약성 ..... 59

나쁜 정책은 자본을 없앤다 ..... 61

결론 .....	63
<b>6 무엇이 자본주의를 작동하게 하는가 .....</b>	<b>66</b>
자기 이익, 재산, 이윤 그리고 유인들 .....	66
경쟁의 과정 .....	72
전문화와 시장들 .....	74
자본주의와 국가 .....	77
<b>7 자본주의의 도덕적 차원 .....</b>	<b>79</b>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도덕적 비전 .....	79
자본주의는 가치를 창출하고 부를 확산시킨다 .....	80
재산권들의 인간 편익들 .....	83
평등과 번영 .....	84
평등을 정의하는 문제 .....	86
자본주의는 인간관계를 증진한다 .....	88
같은 것을 같은 것과 비교하기 .....	89
<b>8 자본주의의 간단한 역사 .....</b>	<b>91</b>
자본주의를 비틀어서 이론에 맞추기 .....	91
국가 주도 상업 .....	92
산업 혁명 .....	95

국가 관리 경제 .....	97
조합주의의 재앙 .....	98
미래를 위해 자본주의 창설하기 .....	101

## 9 자본주의에 관한 위대한 사상가들 ..... 103

살라망카학파(‘스콜라 철학자들’) .....	103
애덤 스미스(1723-90년) .....	105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년) .....	106
루트비히 폰 미제스(1881-1973년) .....	107
F. A. 하이에크(1899-1992년) .....	108
밀턴 프리드먼(1912-2006년) .....	110
제임스 M. 뷰캐넌(1919-2013년)과 고든 탈럭(1922-2014년) ·	111
게리 베커(1930-2014년) .....	112
이즈리얼 커즈너(1930- ) .....	114
데어드러 맥클로스키(1942- ) .....	115

## 10 비판자들과 비판들 ..... 117

도덕적 비판들 .....	118
구조적 비판들 .....	123
기업 권력 .....	125
전 세계적 관계 .....	127
연고자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	129

**11 자본주의의 미래** ..... 131

강점들 ..... 131

약점들 ..... 133

기회들 ..... 137

위협들 ..... 139

자본주의의 지속성 ..... 142

**12 추가적인 읽을거리** ..... 143

적대적인 개론서들 ..... 143

호의적인 개론서들 ..... 144

자본주의와 빈곤에 관하여 ..... 148

철학과 도덕에 관하여 ..... 150

**IEA에 대해** ..... 152

• *웁긴이 후기* ..... 154

• *웁긴이에 대해* ..... 158

## 지은이에 대해

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는 세계의 지도적인 정책 싱크 탱크들 중 하나인 애덤 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의 소장이다. 그는 경제학과 심리학 학위들, 철학 박사 학위, 그리고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에 그는 워싱턴에서 미 하원에 근무했고, 미시건 주 힐스테일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으며, 그 후 애덤 스미스 연구소를 창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왔다. 밸리 포지의 자유의 재단(Freedom's Foundation of Valley Forge)이 수여한 자유 메달(Freedom Medal)과 영국의 전국 자유 기업상(UK National Free Enterprise Award)의 과거 수상자인 버틀러는 현재 몽펠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의 간사이다.

에이먼은 선구적인 경제학자들과 사상가들 애덤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 F. A. 하이에크, 루트비히 폰 미제스 그리고 아인 랜드에 대한 개론서들을 포함한 많은 책들의 저자이다. 그는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 공공선택론, 마그나 카르타,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그리고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관한 입문서들도 출판하였고, 게다가 《축약된 국부론(The Condensed Wealth of Nations)》과 《시중에서 최고의 책(The Best Book on the Market)》도 출판하였다. 그의 《자유사회의 기초(Foundations of a Free Society)》는 2014년 피셔 상(Fisher Prize)을 받았다. 그는 《40세기의 임금 및 가격 통제들(Forty

Centuries of Wage and Price Controls)》과 IQ에 관한 시리즈 책들의 공저자이다. 그는 인쇄, 방송 그리고 온라인 매체에 대한 빈번한 기고자이다.



# 1 서론

## 이 책의 주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강점들과 약점들을, 간단하고 공정하게, 설명하는 책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바로 그 말은 악용의 용어로 주조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오늘날, 그 주제에 관한 대부분의 책들은 자본주의에 여전히 적대적이거나, 그것에 관해 왜곡된, 혼란스러운 그림을 그린다. 이것은 아주 흔해서 자본주의 자신의 지지자들조차도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애를 먹고 있고, 자신들이 그 현실을 설명하기보다 왜곡을 해명하느라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주제를 명백하고 공정하게 개술(概述)하는 짧은 안내서가 필요하다. 이것이 그 책이다.

##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

이 책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본질이 이해될 수 있도록 자본주의가 실제로 무엇인지—그리고, 똑같이 중요하게,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잘라내어 비판자들이 그것에 부담시켰던 혼란

을 벗긴다.

그것은 또한 자본(capital)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형태들을 취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존재하게 되는지, 그것의 목적, 그것의 용도 그리고 그것의 효과들도 확인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그리고 도덕적(moral) 본질과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제도들을 탐구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역사를 추적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요 사상들의 약간을 설명하며,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의 강점들과 약점들에 관한 그리고 자본주의의 미래에 관한 솔직한 평가를 제공한다.

##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명백하고 쉬운 말로, 특수 용어, 전문적인 용어, 각주 그리고 학술 서적의 용어풀이 없이 쓰였다. 그것의 목적은 누구에게라도 자본주의가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책은 확실히 중고등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그러한 더 나은 이해를 가지도록 도울 것—이고, 대학 선생들의 과반수가 자본주의에 여전히 적대적이므로, 학생들이 그 선생들을 테스트할지 모르는 약간의 예리한 질문들을 암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비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쉬운데, 이들은 사업가들,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 및 정치 사상들에 관심이 있고 사상들과 주

장들에 대한 쉬운 안내서를 구하는 보통 사람들을 포함한다.

## 자본주의와 저자

자본주의에 관해 자기들이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거나 자기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깨닫기조차 하는 저자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독자들을 자기들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로 끌어들이며 독자들을 그런 견해들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게 방치한다.

나는—비록 항상 그 현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내가 자본주의의 이상을 지지한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한다. 나는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오히려, 나는 자본주의가 정치인들의 개입들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고 그 다음, 불공정하게, 그 결과들에 대해 비난받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된 상태에서조차도, 자본주의는 여전히 전 세계에 번영을 보급했다.

그래서 나는 자본주의의 이상에 여전히 호의적이지만, 그 개념과 그 현실 양쪽 다에 대해 가해진 비판들을 유념하고 있다. 여기서 이런 비판들에 대답하는 데서, 나는 논쟁의 균형을 다시 잡는 것만 하고 자본주의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관한 공정한 설명을 독자에게 남긴다.

##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 방식

이 책은 우선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그 다음 그것은 자본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그

것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왜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비판자들과 지지자들 양쪽 다에 의해 종종 무시되는) 한 공동체의 자본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엮이는지에 관한 결정적 중요성을 설명한다.

그 다음 그것은 자본주의가 작동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검토하고, 재산, 소유권, 유인들, 경쟁, 시장들, 제도들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본질을 탐구한다. 다음에는, 그것은 자본주의의 (더 드물게 듣는) 긍정적인 도덕적 비전 및 효과들과 더불어 자본주의에 대한 도덕적 비판들을 고찰한다.

그 다음 이 책은 자본주의를 그것의 역사적 맥락에 넣어, 자본주의의 이상들과 원칙들을 창출하는 것을 도왔던 경제 체제들과 그것들을 그렇게 널리 가리고 왜곡시켰던 정치적 개입들을 기록한다.

다음에는, 이 책은 자본주의의 지도적인 지적 옹호자들 약간의 사상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판들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자본주의의 강점들, 약점들, 기회들 그리고 위협들을 개술(概述)하고, 그 다음 자본주의의 미래를 평가하며, 이 때 혹적인 주제에 더 많은 통찰력을 가져오는 추가적인 출처들의 짧은 목록을 독자에게 남겨 둔다.

## 2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 현실과 잘못된 생각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건, 자본주의는 인간 부(富)와 생활 수준에서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다. 1760년대의 산업 혁명의 시작까지, 인간 생활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지에서 일했고, 파라오들(Pharaohs) 이래로 거의 바뀌지 않았던 방법들을 사용했다. 미국 경제사가 데어드러 맥클로스키(Deirdre McCloskey) (1942-)가 계산하듯이, 1800년에, 보통 세계 시민의 소득은 하루에 1달러와 5달러 사이였다. 이제 그것은 평균해서 하루에 거의 50달러가 된다. 그리고 그 평균조차도 더욱 자본주의적인 국가들이 달성한 엄청난 변형을 가린다. 오늘날의 가장 반자본주의적인 국가들 약간이 여전히 하루 1-5달러 빈곤의 진구렁에 빠져 있지만, 자본주의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그리고 영국에서 평균 1일 소득은 이제 하루에 90달러를 넘는다. 미국의 소득은 평균해서 하루에 100달러를 넘어, 현대 미국인들을 1800년대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20-100배 더 부유하게 만든다.

또한 이 엄청난 변형 상승이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지도 않았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한때 사치품이었던 물건들—버젓한 주택, 위생, 조명과 난방, 여분의 의복, 여행, 여가, 오락, 신선한 육류

—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계들은 이제 산업 생산과 집안일에서 힘든 일을 떠맡는다. 보건, 아동 생존, 수명 그리고 교육이 모두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 자본주의의 비방

그렇지만 (맥클로스키가 부르듯이) 이러한 ‘대(大)풍요화(Great Enrichment)’가 전개되었던 바로 그때에,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단어는 경멸의 용어로 바뀌고 있었다. 어근 *자본(capital)*은 11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기서는 (“머리(head)”를 의미하는 *카푃(caput)*에서 온) 라틴어 *카피탈레(capitale)*는 가축에 대해, 그리고 나중에는, 재화와 화폐에 대해 사용되었다. 그저 자본의 소유자만을 의미하는 *자본가(capitalist)*는 1600년대에 나타난다. 그러나 1867년까지는, 산업 혁명이 가져온 풍요화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정치 사상이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1818-83년)는 자기의 책 《자본론(Das Kapital)》에서 ‘자본주의 생산 양식(capitalist mode of production)’—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capitalism)*라고 부르는 것—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것은 엄청나게 성공적인 공격이었는데,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논쟁술이 아직도 오늘날의 토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본주의를, 이기심, 탐욕 그리고 타인들에 대한 관심의 결여 같은,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동기들에 뿌리박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종종, 자본주의는 그런 동기들의 면에서—그것들로부터는 어떠한 사회적 선도 결코 생길 수 없다는 추정과 함께—정의되기

조차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선한 동기들—이타주의, 협동, 조화—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것들이 좋은 사회적 결과들을 낳을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그렇다.

그러나 개인의 동기들과 사회적 결과들 사이의 연결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90년)는 자기 이익이 어떻게 이로운 사회적 결과들을 낳을 수 있을지 보여주었고, 한편 러시아계 미국인 작가인 아인 랜드(Ayn Rand) (1905-82년)는 이타주의가 오직 사회적 해악만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아래에서 사람들을 실제로 고무하는 동기들을 고찰하고 그것들이 좋거나 나쁜 무슨 사회적 결과들을 실제로 낳는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주의에 관한 논평자들의 또 하나의 흔한 실수—혹은 속임수—는, 종종 ‘이상적인 사회주의는 실제로 결코 시험된 적이 없다,’는 변명과 함께, 자본주의의 현실(reality)을 사회주의의 이상(ideal)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순수하고 고상한 것으로서 묘사될 수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는 최근의 경제사에서의 모든 나쁜 동기, 행동 그리고 결과에 대해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이론을 실제와 비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론은 이론과 비교되어야 하고, 결과들은 결과들과 비교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은 자본주의가 어느 쪽 시험에서도 이긴다고 말할 것이다.

다른 미신들과 잘못된 생각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하에서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본을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주장된다. 틀렸다. 다음 장이 보여줄 것이지만, 우리는 모두, 더한 혹은 덜한 정도로, 자본의 소유자들이다. 자본주의는 또한 임금 노동을 사용하

는 대량 생산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는데, 그 다음 이것은 논의를 사회 계급과 착취의 쟁점으로 전환시킨다. 또 틀렸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기업들은 작은 회사들이고 혼자만의 상인들이다. 자본주의는 흔히 이윤들 및 시장들과 동일시된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다른 체제들에서도 존재한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독점과 연고주의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다시, 이러한 것들은 자본주의에 한정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개입에 의해 촉진된다.

## 정의(定義)의 문제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더욱 현실적인 정의가 벌써 이루어졌어야 한다. 우리는 케케묵은 생각을 치우고 진정한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단서를 준다. *자본(-capital-)* 부분은 그것이 자본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ism)* 부분은 그것이 넓은 *생활방식(way of life)*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체제(system)’가 자본주의보다 더욱 중앙 집중적으로 설계되고 관리되는 어떤 것을 암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 그것을 *체제(system)*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자본주의는 자본을 사용하는 생활방식이다.

*자본(capital)*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개념—특정 자본재들의 총계에 관한 추상적인 생각—을 나타낸다. 실제로 오직 특정 매들, 모기들, 호랑이들, 거미들, 지렁이들 그리고 돌고래들에만 존재하는 생각을 서술하기 위해 *동물(animal)*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자본(capital)*이라는 추상적인 생각은, 도구들, 기계들 그

리고 자금 같은, 오직 특정 자본재들에서만 실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대기업들의 거대한 공장들, 제작소들 그리고 생산 라인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본재들은 우리 주위 도처에—선진 세계에서 모든 집(세탁기들, 진공 청소기들), 회사(컴퓨터들, 전화들), 상점(금전 등록기들, 진열 상자들), 극장, 학교 그리고 병원에—있다.

자본의 사용이 왜 생활방식인가? 그 이유는 자본재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생산하는 평이(平易)와 효율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밀을 심고 수확하는 농기구와 밀가루를 제분하고 빵 덩어리들을 구울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적은 육체노동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빵을 생산할 수 있다.

## 자본주의의 더 넓은 관련들

경제학자들은 보통은 토지나 노동을 자본재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자본재를 자연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누군가가 창출하는 자원으로서 본다. 설사 자본재들이 나무와 철광석 같은 자연 재료들로 시작할지 몰라도, 누군가가 여전히 그것들을 삼이나 쇠스랑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본재들은 황야나 사막—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소유되지 않는 물건들—과 같지 않다. 누군가가 그것들을 창출하는 데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재들을 정말 창출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자기들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그들의 노력은 그 자본재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자본재는 그 노력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capital)의 개념은 자

본재들의 사적 소유를 함축—하거나 적어도 강력하게 암시—한다.

이것은 자본이 오직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흔한 풍자만화의 ‘부유한 자본가들(wealthy capitalists)’—만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자본재들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혹은 조합이나 회사와 같은 사람들의 집단들에 의해서든, 창출되고 소유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들이 기업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비록 이것이 *자본주의(capitalism)* 라는 단어의 통상의 사용과 상충하는 것 같을지라도—에 관해 이야기 하기조차 한다.) 확실히, 만약 자본재들이, 개인들에 의해서건 긴밀히 맺어진 집단들에 의해서건, 사적으로 소유되고 통제된다면, 자본주의는 최상으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비록 사적 소유가 자본주의에 한정되지 않(고 아마도 본질적이지도 않)을지 몰라도, 그것은 보통은 그 개념과 매우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는 또한 흔히 시장들을 통한 재화들의 분배와도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장들은 자본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경제재들의 *생산(production)*에 관한 것이고, 시장들은 그것들의 *분배(distribution)*에 관한 것이다. 그 둘을 혼동하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 심각한 실수들에 이르게 된다.

시장들은 자본주의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다른 생산 체제들도 역시 시장들을 사용한다. 또한 시장들이 자본주의에 본질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이 생산하는 물건들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말하자면, 정부 법령으로나 추천으로—분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물건들을 생산하는 데 그저 아주 매우 효과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떤 효율적인 분배 형태가 발견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자본재들의 사용으로 가능하게 된 막대한 생산성은 사람들이 막대한 잉여들을 낼 수 있게 하고 이 잉여들은 그 다음 거래될 수 있다. 시장들은 매우 효율적인 분배 수단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다시, 자본주의와 시장들은 대체로 같이 간다.

## 자본주의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많은 필자들은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임금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견해로는, 자본주의 기업가들은 제작소와 공장 같은 자본재들을 축적하며, 그것들을 운영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무리들을 고용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견해는 이 필자들에게 기업가들의 이윤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비할 기초를 제공하고, 그들은 이것을,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 의해 착취되는, 근본적인 계급 분할(class divide)의 기초로 본다.

이 견해는 틀렸다. 자본주의는 반드시 임금 체계도, 계급 분할도 함축하지 않는다.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혼자만의 상인들도 여전히 자본재들을 얻는다. 도공은 녹로(轆轤)와 가마에 투자하고, 상점 주인은 금전 등록기에 투자하며, 상담자는 컴퓨터들과 전화들에 투자한다. 전적으로 기계들에 의해 운영되는 더 대규모 생산을 상상하는 것조차도 가능하다. 참으로, 자동차 제조업자들, 온라인 소매업자들, 금융 거래자들 그리고 기타 사람들은 자기들의 제품을 배달하는 데 더욱더 로봇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들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사회적으로 이동성이 있으며, 계급에 가장 덜

묶여 있는 국가들이다.

또한 독점(monopoly)이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부분인 것도 아니다. 마르크스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자본주의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거대한 독점들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모의 불경제도 있다. 대기업들은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기술과 소비자 수요 양쪽 다에서 변화들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더 느리며, 더 작고 더 민첩한 경쟁자들이 그들에게서 사업을 훔칠 기회를 준다. 생산자들은 시장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데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하려고 할 수 있고 종종 정말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의 개념에 완전히 반대이고, 자본주의에 본질적이지 않다. 진정한 자본주의에서는, 사업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기꺼이 사는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들과 소비자들의 기호들이 아주 빨리 바뀌고 있어서, 그 점은 누구든 독점을 유지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 자본주의에 고유하지 않은 것들

비판자들이 자본주의에 본질적일 뿐만 아니라 고유하기도 하다고 생각도 하고 글도 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평판에 해를 끼치는 또 하나의 혼동이거나 속임수이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모두 이윤에 관한 것이라고, 그리고 이윤이 종종 나쁜 것으로 간주된다고, 종종 쓴다. 두 견해 모두 잘못됐다. 이윤은 그저 당신이 투입하는 것들에서 더 많은 가치를 얻는 것을 의미

할 뿐이다. 그러나 이윤은 단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비재정적인 이윤을 추구한다. 만약 우리가 작은 산의 정상에 힘들게 올라가지만 절경으로 보상을 받거나, 강에 참여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배운다면, 우리가 그 노력에서 이윤을 얻었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건 아니건 어떤 경제 체제에서도,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가치 이득(gains in value)을 얻기를 희망한다. 참으로, 시간, 정력, 자원들 그리고 위험의 투입들을 수반하는 경제 활동은, 만약 우리가 그것이 생산하는 재화를 우리가 그것을 생산하는 데 쓴 투입물들보다 덜 평가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기이하게도, 또한 자본은 자본주의에 고유하지도 않다. 다른 생산 형태들도 역시 자본재들을 사용한다. 가장 원시적인 마을 공동체의 수공구(手工具)들로부터 가장 앞선 사회주의 경제의 제작소들과 공장들까지, 생산을 더 쉽고 더 효과적이게 하도록 자본재들이 창출되고 사용된다.

경쟁(competition)—종종 자본주의의 비판자들에 의해, 논쟁의 효과를 위해, ‘살벌한 경쟁(cut-throat competition)’이라고 불린다—도 역시 자본주의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다른 체제들도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거나, 생산적이거나, 정직하거나, 혁신적이도록 자극하는 방법들로서 보상들(예를 들면, 재정적, 정치적 혹은 명예적 보상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사용한다.

연고주의(cronyism)는 자본주의의 핵심 개념의 일부가 아니고, 확실히 자본주의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자본주의의 원칙들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자본 소유자들과 정치인들의 신성하지 않은 동

맹(unholy alliance)을 함축하지 않는다. 참으로, 자본주의 원칙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건 국가와 그것의 연고자들로부터건, 강제와 도둑질에 대비한 개인들의 보호(Protection)로 국가 권력을 국한한다. 실제로, 사회주의 사회들에서 훨씬 더 많은 연고주의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국가가 사물들을 다루기 위해 크고 강력해야 하고, 그러므로 정치인들과 관리들을 매수하는 것을 통해서 요청할 더 많은 국가 권력이 있다.

착취(Exploitation)는 사실상 자본주의의 일부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자기의 편익들을 자발적 교환을 통해서 내놓지, 사람들에게 일정한 것들을 사거나 생산하거나 소비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통해서 내놓지 않는다. 사람들은 고용주를 위해 임금 노동자로 강제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요구하는 것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들은 자기들이 사는 것과 사지 않는 것에 대해 선택권이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교환이 자발적이므로, 교환은 오직 양측이 이익을 얻는 곳에서만 발생한다. 축구 스티커들을 교환하는 아이들처럼, 자발적인 교환은 각각의 편에게 자기들이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남겨 둔다. 양쪽이 교환에서 이익을 찾아내지 못하면, 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에서도 똑 같다. 번영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은 고객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돈보다 더 크게 고객들이 소중히 여기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고용을 가치 있는 것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포기하는 시간과 노력보다 더 크게 자기들의 소득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러한 자발적인 교환들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상태가 더 낮게 한다.

마지막으로, 탐욕(greed)도 자본주의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경제 체제들과 사회 각계각층에 존재한다. 자본주의는 확실히 자기 이익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고난 인간 특성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탐욕을 벌한다. 자유로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기로 부정직하거나, 믿을 수 없거나, 혹은 자신들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자기 고객들에 너무 적게 집중하는 생산자들을 그저 상대하지 않을 뿐이다. 경쟁적 경제에서는, 그들이 갈 수 있는 많은 다른 공급자들이 있다. 그것은 카페들이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것을 막는 데 우리가 ‘반(反)탐욕(anti-greed)’ 법률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이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고객들은 곧 그들을 버릴 것이다. 사실상, 자본주의는 협동적이다. 우리 모두는 정직한 거래를 통한 협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거래하는 세계에서 살기를 원한다.

## 자본주의 정의하기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실제로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가능한 한 생산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자본재들을 창출하고 적용하는 일반적인 경제생활 방식이다.

이 핵심 정의를 넘어서, 자본주의는 또한 그것에 고유하거나 본질적이지 않을지도 모르는 다른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

면, 그것은 사적인 개인들과 집단들에 의한 재산 소유와 관련되어 있다. 재산권들—재산이 어떻게 획득되거나, 보호되거나, 사용되거나, 기부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칙들—은 자본주의에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개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재들을 창출하고 고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또한 시장 교환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경제재들을 분배하는 다른 방식들이 가능하지만, 시장 교환은 자본주의의 생산자들(이들도 역시 고도로 효율적이다)이 창출할 수 있는 상금을 분배하는 효율적인 방식을 제공한다. 덧붙여서, 시장 가격들은 생산자들에게 고객들의 선호들에 주의하게 한다—그들이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그런 선호들을 만족시키는 데 자기들의 자본을 집중시키는 것을 돕는다.

자본주의는 보통—도덕적 혹은 사회적 결과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재들의 창출과 분배에 관한—경제적 생활방식으로서 간주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상—많은 수준들에서 인간 상호 작용에 관한—사회적 체제이다.

그것은 또한 고도로 도덕적인 체제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에서 인간 관계들은 강제되지 않고 자발적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사물들을 투자하고, 창출하고, 공급하고, 팔고, 산다. 어떤 정부도 그들의 행동들을 규정하지 않는다. 결정들은 그들의 것이다. 참으로,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권력의 유일한 역할은 개인들이 강제되지—즉 빼앗기거나, 사기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침해되지—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명령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거래하기, 계약들을 존중하기 그리고 폭력을 피하기 같은) 일반

적인 규칙들이—정부 당국을 포함한—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시 규칙들을 따름으로써 진행되는 게임과 같이, 자본주의는 어떠한 특정 결과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 어리석음 혹은 불운에 대해 비난받을 수 없다. 그것은 계몽이나 평등을 약속하지 않는다. (비록 사실상 그것이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정말 약속하는 것은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과 기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 놓고, 사람들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사기, 강제 그리고 폭력을 거부하는 방식들로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 3 자본이란 무엇인가

#### 자본의 개념

우리가 보았듯이, 자본(capital)은, 동물(animal)의 개념과 같이, 추상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자기들이 그것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동물로서 인식할 수 있는 반면, 자본이 무엇인지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들은—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조차도—거의 없다.

다시, 많은 사람들은 거대한 공장, 빌딩, 기중기, 메탈 프레스(metal presses) 그리고 재정 자금의 면에서 자본을 그리는데, 이것은 자본이 오직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소유되고 있다는 생각을 보강한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재들이 선진 국가들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의해 소유 및 사용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은 자본재들이 민주적이라고 말하기조차 할지 모른다.

#### 자본의 목적

우선 자본이 왜 존재하느냐고 질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대답은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많은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더욱 효율적으

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자본재들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의, 식, 주, 조명, 난방, 의약, 교육, 장난감, 운송, 통신, 예술, 오락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것들 없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값싸고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물건들을 생산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물건들을 향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코틀랜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90년)가 표현하듯이,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끝이고 목적이다.’ 그렇지만 많은 자본주의 비판자들은, 우선 우리가 왜 물건들을 생산하는지에 관해서나,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기를 원하는지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생산이 어떻게 재구조화되어야 하는지에 집중한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 노력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는 모두 너무나 귀중해서 낭비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들을 생산하는 데,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고, 쉽고, 값싸게 생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자본은 어떻게 생산성을 증대시키는가

우리는 자본을 창출하고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자본이 우리를 더욱 생산적이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트와 낚시줄과 그물을 사용하여,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맨손을 사용하여 늘 잡을 수 있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트랙터와 수확기를 사용하여, 우리는 토지를 경작할 수 있고 노력을 훨씬 덜 들이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동력 직기를 사용하여, 우리는 더 많은 면화를 더 많은 의복들로 더 빠르고 더 값싸게 가공할 수 있다. 트럭을 사용하여, 우리는 이 제품들을 그것들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빠르고 쉽게 배급할 수 있다.

사실상, 자본재들이 생산성에서 아주 경이적인 개선들을 제공할 수 있어서, 우리는 훨씬 더 큰 양이나 질로, 그리고 훨씬 더 낮은 비용에,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다. 영국인 작가 맷 리들리(Matt Ridley) (1958-)는 오늘날의 전등이 1800년의 양초보다 조명을 43,200배 더 값싸게 제공하고, 농업 생산이 1900년보다 600배 더 높다고 계산한다. 책들이 필경사들에 의해 작성되어야 했을 때, 단지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들을 살 돈이 있었다. 인쇄기들은 지금 그것들을 백만을 단위로 생산하고, 더 많은 것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된다. 면으로 된 옷도 역시 한때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산업 혁명의 동력 직기는 그것을 백배나 싸게 하였고, 전 세계에 걸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오늘날의 생산 라인들에서 발생하는 손목시계들은 19세기에 손으로 만든 회중시계들보다 더 훌쩍하고, 더 정확하며, 비용이 1,000분의 1이다.

자본재들로 우리는 그것들 없이는 불가능할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은 오늘날, 냉장 수송 덕분에, —더 이상 소금물로 절인 것이 아니라—신선한 망고들을 즐기고, 항공 화물은 그것들을 흔하게 하였다. 우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우리는 세계의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과 사업을 하거나, 이동 중에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뉴스, 정보 그리고 오락의 방대한 수집물을 끌어내릴—당신의 호주머니에 든 세계의 교향악단—수 있다. 나노 기술로 우리

는 너무 작아 볼 수 없는 태양 전지들, 병균을 줄이는 데 빛 에너지를 사용하는 필름들 그리고 자기의 원래 크기의 열다섯 배까지 펼쳐지는 섬유를 생산할 수 있다.

직접 소비할 새롭고, 더 값싸고, 더 낫고, 더 풍부한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본재들은 또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는 투입물들을 개선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기계들로 우리는 우리가 자동차나 세탁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철광석을 채굴하고 굴림대로 강철을 옮기거나, 우리가 우리의 음식을 담을 저장 단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유리를 생산하거나, 우리가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 우리가 구두, 침대, 창틀 그리고 카누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염소(鹽素)를 만들어낼 수 있다.

## 전통적인 자본 관념들

*물리적 재화(physical goods)*.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재를 도구, 산업 기계, 공장, 혹은 어쩌면 사무실, 컴퓨터 그리고 배달 트럭과 같은 물리적 재화로 생각한다. 그러한 재화들은 우리가 그것들 없이 할 수 있을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대량으로 우리가 물건들을 만들고 배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명백히 우리의 생산성을 높인다. 이만큼은 간단하다.

그러나 자본재 *시장들(markets)*이 이런 (그리고 다른) 자본재들의 생산성을 더욱더 올린다는 점은 종종 간과된다. 새 및 중고 시장들은 기계, 선박, 차량, 장비 그리고 심지어 건물조차도 그것들의 최고 가

치 용도들로 돌린다.

예를 들어, 배터리 기술의 개선으로, 전기 트럭들이 더 값싸고, 더 믿을 수 있고, 더 조용하고, 더 깨끗하기 때문에, 많은 생산자들이 자기들의 배달대(隊)들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기 트럭들을 더 많이 사고 디젤 트럭들을 더 적게 사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변화는 트럭 제조업자들에게 그들이—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고 디젤 모터 대신 전기 모터를 편입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생산 라인들을 조정하여—기계 공구를 갈아야 한다는 시장 신호를 준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공급자들은 자기들이 디젤 엔진들을 더 적게 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자기들의 생산 라인들을 더 잘 팔리는 제품들을 만드는 데로 전환할 것이다. 한편, 구 디젤 트럭들과 엔진들은 그 금속이 더 생산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체되거나, 중고 시장들에서 여전히 그것들에 대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싸게 팔릴 것이다. 그러한 방식들로, 구 및 신 자본재들은 자동적으로 그들의 가장 생산적인 용도들로 돌려진다.

**금융 자본(financial capital).** 또 하나의 낯익은 자본 형태는 금융 자본이다.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들은 은행들이 저축자들로부터 모으는 돈을 빌려서, 창업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데 그것을 사용한다. 그런 기업들에게는 금융은 어떤 다른 자본재와 마찬가지로 자본재이어서, 그들은 물건들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혹은 자기들의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자기들의 산출량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살 수 있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는 기업들은 덜

성공적인 기업들보다 만족한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소득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고, 더 많은 금융 자본을 자기들의 기업들로 끌어들이 수 있다. 그러므로 물리적 자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융 자본 시장은 금융 자본을 그것의 가장 생산적인 용도들로 빠르게 돌린다.

사람들은 종종 그 금융 자본이, 어떤 다른 종류의 자본보다 더,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잘못이다. 자금들에 대한 궁극적인 투자자들이면서 그 다음 기업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개, ‘만일의 경우(rainy day)’에 대비해서 혹은 자기들의 퇴직 시의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보통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실제 ‘자본가들(capitalists)’이다.

*사회 기반 시설(Infrastructure)*. 도로, 다리 그리고 항구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은—비록 그것들이 민간 개인들이나 집단들보다 일반적으로 정부들에 의해 소유되어 기이한 형태의 자본이긴 할지라도—상업을 더 쉽고 더 값싸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재화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의 비판자들은 추측건대 ‘자본가(capitalist)’ 기업들이 사실상 국가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도로들, 철도망들 그리고 항구들이 원래 민간 투자자들에게 의해서나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의 사적인 행동에 의해서 창설되었—고, 나머지는 민간 개인들과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에서 지급되었—다는 점을 잊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public)’ 기반 시설조차도 민간 부에 근거하고 있다.

## 가장 중요한 자본 형태

그것들이 중요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자본 형태들의 어느 것도 우리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우리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미국 경제학자 게리 베커(Gary Becker) (1930-2014년)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는 구절을 주조하지는 않았지만, 그 생각에 관해 광범위하게 연구했다. 인적 자본은 개인들을 더 생산적이게 만드는 모든 지식과 개인적인 자질들이다. 그것은 우리의 교육과 기능들을 포함하지만, 또한 근면과 같은 자질들도 포함하고, 좋은 건강조차도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생산적이게 만들도록 이러한 것들에 투자하는데, 우리가 다른 자본재들에 투자하는 것과 꼭 같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생산적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및 실무적 기능들을 배우기 위해 중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훈련 과정에 다닌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지 모르는 것은 우리의 벌기 잠재력(earning potential)이지만, 만약 우리가 더욱 생산적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더 많이 벌 수 있다. 고용주들은 새 고용인들에게 그들의 기계들과 정보 체계들을 운용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데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가족들은 자기들의 아이들에게 자제, 정직, 신뢰성, 시간 엄수 그리고 비슷하게 근로와 사업에서 그들의 전망을 향상시키는 기타 가치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체력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더 오랫동안 계속 더 생산적일 수 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우리의 생산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도울

시장들이 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자격증들을 얻을 수 있는 대학들, 우리가 우리의 기능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정들, 우리의 기능들과 개인적인 자질들을 우리가 가장 적합한 일자리들에 맞추는 고용 기관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 피트니스 클럽들(fitness clubs),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을 회복시킬 상담소들과 재활 센터들을 포함한다.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토지와 더불어, 노동을 자본과 다른 것으로 간주하지만, 인적 자본의 개념은 이런 구분이 너무 엄밀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인적 자본은 노동을 더 생산적이게 하는데, 도구들과 장비가 그렇게 하는 것과 꼭 같다. 참으로, 그것은 같이 모은 모든 다른 자본 형태들보다 생산성에 아마도 더 중요할 것이다. 설사 일반적인 자본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소유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모든 사람(everyone)이 인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개인들과 가족들이 그것에 심하게 투자한다. 무(無)에서 성공적인 기업들을 세우는 이민자들—애스터(Astor), 카네기(Carnegie) 혹은 프록터 앤드 갬블(Procter & Gamble)의 창업주들인 크라프트(Kraft)와 뒤퐁(DuPont)—의 성공들은 교육, 기능들 그리고 집중과 근면 같은 개인적 자질들의 중요성을 증언한다. 홍콩, 마카오 혹은 싱가포르—자기들의 주민들의 가치들과 근로 윤리를 제외하고 자연 자원들이 거의 없는 작은 지역들—의 부(富)가 그렇듯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인적 자본은 번성하는 데 올바른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들과 자기들의 가족들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들이 그 투자의 과실들을 향유할 권리가 존중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

## 체계 하부 구조

자본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그것들의 편익의 중요한 부분이다. 선구적인 자동차 제조업자 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년)의 고용인들은 어떤 다른 고용인들과 대체로 똑같은 망치들, 스패너(너트를 죄는 공구—옮긴이 주)들 혹은 화물용 승강기들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는 이 자본을 조립 라인에서 조직했는데, 이것은 자동차 제조를 그것 이전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게 하였다. 올바른 체계(system)는 중요한 자본 자산이다.

망들(networks). 전화망, 공급망(supply chain) 그리고 유통 체계(distribution system)는, 통신과 유통의 효율을 높이는. 이러한 ‘조직적(organizational)’ 자본의 다른 형태들이다. 인터넷, 대화형 TV(interactive TV) 그리고 이메일과 같은 정보망들도 역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인다. 생산과 교환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아이디어들의 보급을 촉진하여, 혁신을 장려하고 새로운, 더 나은 생산적 기법들의 발견을 장려한다. 그것들은 또한—가족들을 아기를 봐주는 사람들(babysitters)에, 여행자들을 운전자들에, 그리고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을 머무를 곳을 찾는 사람들에 맞추는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앱들(apps)과 같이—더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가능하게도 한다.

시장들(markets). 시장 체제가 자본주의와 같지는 않다. 그러나—재화, 서비스, 금융 혹은 노동의 어느 것이건—개별 시장들은 아마도 틀

림없이 자본의 한 형태일 것이다. 그것들은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분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 자체로 생산적인 장치이다.

다른 자본 형태들과 같이, 시장들은—그것들을 계속해서 작동하게 하는 데 필요한 규칙들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매자들, 판매자들 및 중개인들이 의존하는 통신과 기타 제도들을 유지하기 위하여—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것들은 또한 잉여와 부족에 관한 정보를 보급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인기 있는 TV 쇼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촬영된 장소를 방문하고 싶게 한다면, 패키지 투어 전문 여행업자들(tour operators)은 자기들이 사람들을 거기로 데려가는 데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지역으로 더 많은 비행기 여행들, 열차들 혹은 버스들을 예정할 것이고, 수익성이 덜한 목적지들에서 그것들을 뺄 것이다. 덧붙여서, 방문객 수의 상승은 지역 식당들과 커피숍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게 할 것이고, 새로운 것들이 개업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반면 지역민들은 자기들이 다른 근로 형태들에서보다 웨이터로서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들과 같은 가격 신호들을 통하여, 생산과 자본은 그것들의 최고 가치 용도들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돌려진다.

사실상, 시장 가격들은 지구 곳곳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활동들을 조정한다. 심지어 1776년에조차, 애덤 스미스는 간단한 양털 외투의 생산에서도 관련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즉 목동들, 실 잣는 사람들, 베 짜는 사람들, 염색업자들, 상인들, 선원들, 조선공들, 도구 제작자들, 등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 어느 누구

도 특별한 고객을 위해 특별한 외투를 생산할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시장 가격들에 반응할 뿐이고, 시장 가격들은 그들의 노력이 어디에 적용되는 것이 최선인지를 신호한다. 그리고 만약 고객 수요(혹은, 그 문제와 관련, 생산 기술)가 변하면, 가격들이 변할 것이고, 새로운 신호들이 전 망(網)을 통해 잔물결이 일 것이며,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그러한 동태적인 조정을 통하여, 시장들은 모든 생산자와 그들이 손대는 모든 자본재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시장들은 고(高)가치 생산자들과 사려 깊은 계획자들에게 상을 주고, 덜 효과적인 생산자들에게 자기들의 노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부추긴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또한 자원들을 보존하기도 한다—결국, 만약 자기의 시간, 노력 혹은 자본이 다른 곳에서 더 낫게 사용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 법적 및 문화적 자본

사법(司法). 자본주의는 자발적인 행동들과 상호 작용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장치는 오직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어야만, 그리고 안심 놓고 계획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폭력, 도둑질 혹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계약적 약속들이 지켜진다는 것, 그리고 개인들의 권리들과 자유들이 존중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사법 제도(system of justice)를 필요로 한다.

시장들과 같이, 사법 제도도 역시 자본 자산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

다. 우리는 그것에 크게 투자하고( 입법, 치안, 법원, 교도소 등), 그것은 비교적 오래가며, 그것은 신뢰를 촉진함으로써, 그래서 자본주의가 순조롭게 작동하도록 확실히 함으로써, 우리를 더 생산적이라도록 한다.

이 자산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분쟁들이 해결되고 수용 가능한 상업 행동 규범들이 확립되는 관습법(common law), 사법이 정당한 법의 절차를 따르고 당국자들도 우리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법에 구속되는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정부 권력의 사용에 대한 헌법적 억제와 함께, 민주주의와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규칙들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신뢰, 확실성 그리고 안전을 증진하고, 그래서 사전 계획, 투자 그리고 시장에서의 쉬운 거래를 촉진하여, 사법을 우리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자본 자산으로 만든다.

*재산권들.* 사람들이 더 투자들을 하고 자본재들을 창출할 것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것들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점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소유권과 재산 사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적 규칙들과 사회적 관행들—소위 재산권들(property rights)—은 비교적 확실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비행기가 당신의 소유지 위로 나는 것이 허용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높이로?). 그리고 상황과 견해가 바뀔에 따라 그것들은 정말 바뀐다(예를 들어, 당신이 대마초를 소유하고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그렇지만 비교적 직관적이고 지속적임으로써, 그것들은 신뢰와 생산성을 증진한다.

지적 재산—상표, 저작권 그리고 특허권—은, 기간이 제한되는, 특별한 종류의 재산이다. 그것들 배후에 있는 생각은 발명가들, 저자들 그리고 귀중한 브랜드를 축적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노력들의 과실들을 향유할 수 있게 보장하자는 것이다—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혁신자들도 똑같이 하도록 장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업이나, 그 사람의 상속인들과 후계자들이, 그 제품이나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영구히 누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우리는 아이디어들이 개발되고 확산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호들에 대해 시간을 제한한다. 정확한 규칙들은 전 세계에서 다를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원칙이 존중된다는 사실은 신뢰와 생산성을 여전히 증진한다.

*문화와 도덕적 전통.* 자본주의와 그것이 달성하는 생산성은 상호 존중, 널리 공유되는 가치들, 신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강압의 사용의 전반적인 거부가 존재하는 문화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경제적 실험들은 자본주의와 이 문화가 상호 보강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시장들이 잘 확립되어 있는 곳들에서 온 사람들은 시장들이 덜 중요한 곳들에서 온 사람들보다 더 서로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신뢰의 문화는 자연적으로 상업을 더 쉽게 한다.

작은, 동질적인 사회들에서는, 신뢰가 자연적으로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다양한 주민들을 가진 대부분의 곳들에서는, 그것은 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가치들과 제도들을 개발하는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문화는 우리가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어떤 것이고, 비교적 지속적이며, 우리

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 아주 자본의 한 형태인 것 같다.

## 결론

자본을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할지는 논쟁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자본이 공장들, 중기계(重機械)들, 선박들 그리고 소수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들의 배열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것은 훨씬 더 민주적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집, 상점 그리고 사무실에서 자본재들을 사용한다. 우리는 은행들과 금융 펀드들에 저축하고 이것들은 그 다음에는 생산적인 기업들에 투자한다. 우리는 사적 망들과 사적으로 생산된 부를 가지고 쌓아 올린 공적 망들을 사용함으로써 더 생산적이게 된다.

우리는 시장들과, 우리의 생산성에 자기들 특유의 공헌을 하는, 기타 체계들을 사용하고 있고 사회의 문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 안에 인적 자본, 즉 우리의 지식, 기능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자본가인데, 자본은 매우 다양한—그리고 매우 민주적인—어떤 것이다.

## 4 자본은 어떻게 창출되는가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본의 생애(life)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그것이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 쉽게 상실되거나 파괴된다는 것, 그리고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관한 그릇된 생각들로 인해 자본주의 그 자체에 관한 많은 잘못된 비판들이 생긴다.

### 자본 취득에 관한 잘못된 견해들

많은 비판자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힘든 일로부터 자본을 흠뻑으로 썩만이 자본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다. 그들은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속여 근로자들이 창출하는 가치를 빼앗음으로써 자본을 취득한다고 주장한다. 혹은 그들은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켜 자기들이 정복하는 국가들의 산물을 빼앗음으로써 자기들의 자본을 축적한다고 주장한다. 혹은 그들은 대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속이는 독점들을 창설하는 데 정치적 연고주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바꿔 말하면, 자본가들은 사기, 전쟁 혹은 강취를 통해 자본가들이 된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들이 이런 범죄들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본이 그들의 수중으로 돌아가서, 노력도 하지 않는데도 그들에게 계속적인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들은 틀렸—거나 적어도 구식이—다. 확실히 자본이 관례적으로 강압(force)으로 취득되었던 때가 있었다.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입하여 그들의 부를 빼앗고 그 다음 피정복민들의 노동에 기생하곤 하던 때가 있었다. 귀족들이 자기들의 농노들을 착취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군주들이 돈이 벌리는 독점들을 자기들의 근친들에게 부여하곤 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였고, 그때는 사람들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가난해서, 자기들 자신의 자본재들을 취득할 여유가 거의 없었다. 오늘날 선진 국가들에서는, 강압은 금지되고 자본은, 다른 사람들을 강제하지 않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자본은 더 이상, 얻으려고 싸우거나 훔칠, 드문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훨씬 더 부유한 세계 주민에 의해, 훨씬 더 입수 가능하고, 훨씬 더 널리 보유되어 있다. 오늘날 자본을 취득하는 유일한 정당한 방식은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창출하는 것이다.

자본이 자기의 운 좋은 사람들에게—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들과 같이—힘들이지 않은 편익들의 끊임없는 흐름을 제공하는 영구적인 재산이라는 생각도 역시 잘못이다. 사실상, 자본은 보존하는 데 시간, 돈 그리고 노력이 든다. 그것은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하고 경쟁적인 세계에서 자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것은 끊임 없는 근면과 집중을 가지고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과수원이 계속 빛 지지 않고 살아가려면 과일나무조차도 재배하고, 접붙이고, 물주고, 살충제를 뿌리고, 영양물을 주고, 결국에는 대체해야 한다. 그럴 때조차도 과일은 수확되고 이용되어야—유통되거나 음료로 가공 처리되어야—한다. 만약 이런 일의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

중한 과수원이 되지 못할 것이고 쓸모없는, 방치된 황무지—더 이상 자본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가 될 것이다.

다시, 비판자들은 개인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자본이 (그리고 자본주의가) 실제로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자본은 그저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되어야 한다. 오늘날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 창출되고 소유된다. 그것의 가치는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하고, 적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 자본은 유지하기 쉽지 않다

자본은 또한 위험과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서나, 그것을 소비함으로써나, 폭력과 과세를 통하여서도—너무나 쉽게—상실될 수 있다.

*위험과 불확실성.* 우리 어느 누구도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시도들을 붕괴시키는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비해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설사 우리가 미래가 여는 것에 관해 꽤 자신하고, 성공이나 실패의 가능성을 면밀하게 계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틀린 것으로 드러날 위험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재를 창출하기 위해 시간, 노력 혹은 돈을 투자할 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미래 결과들에 관한 우리의 평가는 틀릴지 모른다. 즉, 우리의 투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낮은 수익이나, 심지어 손실조차도, 낳을지 모른다. 예를 들면, 당신은 아주 최근의 피자 만들기 기술을 가지고 피자점을 열지만, 결국 고

객들이 경쟁자의 피자를 좋아하거나 건강 유행에 설득되어 대신 샐러드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할지 모른다. 만약 사정이 정말 나빠지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투자를 장부에서 지우고, 자본 장비를 폐기하며,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만약 사람들이 한 사업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보상도 역시 높다고 예상하는 경우에만 그것에 투자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에 걸쳐서는, 근소한 위험조차도 사람들의 자본 소유물을 파괴할 수 있다. 그것은 부가 영구적으로 동일한 사람의 수중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이다. 50년 전에 나온 어떤 잡지든 골라잡아서 광고들을 보라. 당신이 보는 회사들 중에서 당신에게 낮익을 회사들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은 더 새롭거나, 더 낫거나, 더 값싼 매물을 가진 경쟁자들에 의해 오래 전에 사업에서 쫓겨났다. ‘부자 3대 못 간다(shirt sleeves to shirt sleeves in three generations),’라는 오래된 격언이 선언하듯이, 가족 기업들도 역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즉, 한 사람이 기업을 설립하고, 자식들이 그것을 상속받아 운영하며, 손자들이, 사업 감각보다는 돈을 갖고 태어나서, 그것을 망친다.

*소비.* 낭비는 자본을 파괴한다—누구나 위험을 통해 자본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가족 기업의 소유자들은, 새로운 자본 장비에 투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 자신의 활수한 임금을 지불하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에 거슬러서 빌리거나, 자기의 자산을 싸게 팔아 치울지 모른다. 혹은 설립자들은 자기들의 자식들과 손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신탁 기금을 설립할

지 모른다—그 다음 이들은 그 자본이 미래를 위해 움직이게 하는 대신에 (‘빈민처럼 행세하는 부유층 젊은이(trustafarian)’ 식으로) 그저 그것에 기생할 뿐이다. 어느 쪽이든, 그 가족은 자기의 자본을 소비한다. 오래지 않아, 그들은 다시 셔츠소매(shirt sleeves)로 되돌아온다.

폭력. 물론 자본은 도둑질이나 사기로 상실될 수 있고, 아니면 폭력을 통해 파괴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비도덕적이고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들은 모든 사람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자원들이 소비되어야 한다. 설사 그 범죄가 처벌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압으로 자본을 빼앗는 사람은 아마도 그것을 주의 깊게 창출하고, 집중하고, 관리하고, 그것의 가장 생산적인 목적에 적용한 사람보다 그것으로부터 더 적은 가치를 추출할 것—이고 전 공동체에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궁극적인 폭력 형태는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약간의 자본주의 비판자들은 전쟁 덕분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로부터 자본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실업가들이 전쟁에 필요할 모든 선박, 항공기, 전자 기기, 차량 그리고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전쟁을 좋아(하고 선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기업들은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 오직 정부들만이 최후통첩을 발하거나 병사들을 징집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대단히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쟁은 위험을 증가시키고(이것은 사업을 하는 비용을 올린다), 고객 신뢰와 수요에 해를 끼치며, —물리적 재화, 체계 그리고 인적 자본을 포함하는—

자본을 파괴한다. 이 명백한 공리(公理)는 지금 자기들이 거래하는 다른 국가들과 개전하는 민주 국가들이 아주 거의 없는 이유이다. 과거 세기들에서는, 전쟁은 다른 국가의 자본을 빼앗는 좋은 방법으로서 간주되었을지 모른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본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출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깨닫고 있다.

과세. 자본은, 부나 소득의 과세 같은, 국가 행동의 덜 과격한 형태들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빈자들을 돕고 ‘부자들(the rich)’이 공공 서비스에 더 많이 기부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모든 자본 형태들에 1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 기업을 창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재들—건물이 딸린 토지, 기계, 장비, 차량 그리고 자금—이 지금은 10퍼센트 더 비싸다는 것을 이제 알 것이다. 그것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모험사업을 덜 추진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돈과 노력을 그 사업에 걸기 전에 자기들의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점을 이전보다 더 확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본재를 덜 축적하거나, 확장하거나, 대체하기도 할 것이다. 그 결과, 생산 능력이 상실될 것이고, 공동체 전체가 약간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일반 부(富)가 과세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돈을 비생산적으로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그것을 오늘의 쾌락에 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부를 생산적인 자본 자산으로 전환

하려면, 그들은 방향과 초점을 가지고 그것을 그 목적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노력의 완전한 보상을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것을 장려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 과세될 때, 그 잠재적인 보상은 낮아지고 손실의 위험은 증가된다. 그 결과, 사람들의 부는 덜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그들의 재정 자금들은 생산성을 증대하는 데 사용되기보다 분할되고, 소진되며, 소비된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

*재분배.* 재분배는 자본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정책이다. 자본은 그것의 생산성에 대한 아무런 손실이나 파괴 없이 그저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만은 없다. 자본의 생산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리고—중요하게—그것이 다른 자본과 어떻게 통합되는지와 같은 많은 것들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복잡한 제품 배달망은 만약 그것의 트럭들 중 약간이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위해 징발된다면 불가피하게 파괴된다.

농장들이 그것들의 소유자들로부터 탈취되고 토지와 장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재분배되었던 나라들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통합된 체계들과 자본 구조들이 해체되는데, 너무나 자주 그 결과는 흉작이자 식량 부족이다. 마찬가지로, 집단 농업에 대한 중국의 실험은 비참한 실패작이었고, 오직 그 나라가 사적 소유에 더 가까운 새로운 ‘가족 책임(family responsibility)’ 체계를 도입했을 때에만 회복되었다.

*반독점 법률.* 큰 회사들의 독점 권력을 억제하는 것을 겨냥한 법률들도 역시 자본망(capital network)에 해로운 효과를 끼칠 수 있다. 개방

적이고 경쟁적인 경제에서는, 회사들은—강제나 연고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고객들에게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줌으로써만이 성장할 수 있다. 그들의 성장은 그들이 그것에 성공했다는 징후이다.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제한은 대중에게 최대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자기들의 자본을 사용하는 일에 효율적인 회사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본이 대신 덜 효율적인 생산자들에게로 돌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조차도 피해가 있다.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언제 ‘지배적(dominant)’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큰 규모가 그것이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가치의 징후이기보다 그들에 대한 위협인지 아닌지를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반독점 입법자들의 결정들은 기업들이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채로 있기로 결정하고, 그들의 효율의 잠재적 이득은 상실된다. 아니면 그들이 성장하지만 그 다음 규제자들에 의해 분할되어 그들의 자본망을 파괴시키고 그 결과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우리가 보았듯이, 가장 큰 기업들조차도 다른 큰 회사들이나, 다른 기업들의 결합들이나, 심지어 그들의 사업의 상이한 부분들을 조금씩 쪼아내는 더 작은 기업들에 의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자본주의 지지자들은 인기 있고 성공적인 생산자들에게 자의적인 규모 한계를 부과하기보다는 시장들을 더 개방적이게 하는 일에 정책이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 자본은 인간 평가에 달려 있다

종종 비판자들 쪽에서 못 보고 놓치는, 자본의 민주적 혹은 개인주의적 본질의 또 하나의 측면은 자본이, 인간과 별개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저 가치 없는 물건만이 아니라, 자본재가 되기 위해서는, 물건은 인간 필요, 욕망 그리고 가치에 이바지하게 되어야 한다. 돌은 인간이—말하자면, 집을 짓는 데나 옥수수를 가는 데서—그것의 생산적 잠재력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가치가 없는, 그저 돌일 뿐이다. 오직 그 다음에야 그것은 자본이 된다. 우라늄은 우리가 원자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발견했을 때까지는 대개 쓸모없(고 그러므로 가치 없)는 광물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제, 우라늄 광산은 귀중한 자본 자산이다.

그러나 만약 인간들이 어떤 것을 쓸모없는 물건에서 잠재적으로 생산적인 자본 자산으로 바꾸려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 재산권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의 사용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몇 년 전 페루의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 소토(Hernando De Soto)(1941-)는, 페루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다수가 스스로 집들을 짓고 땅 떼기들을 경작했지만, 이것들이 자본으로 간주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의 사용자들이 그것들에 대해 법적 권리 증서(legal title)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바뀌도록 운동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농부들은 법적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집들을 토지와 장비를 살 대부금에 대한 담보물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의 재산권들은 한때 가치 없었던 토지를 안전하고 가치

있게 하고, 그들을 부추겨 그것을 더 생산적이게 하는 데 투자하게 한다.

재산 소유권들, 소유권의 법적 지위, 주식회사들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그리고 시장들의 규정들과 문화와 같은 개념들은 고도로 선진화된 서양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아주 낮익어서 그것들은 거의 인식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또한 자유가 아주 억압되고 경제적 권력이 아주 중앙 집권화되어서 재산권들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에서도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들은 자원들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절대로 필요한 법적이고 문화적인 자산들이다.

## 자본의 진정한 기원

그러므로 재산권들과 법체계들을 창설하는 것은 물건들을 자본으로 바꾸는 중요한 방식이고, 그런 체계들을 유지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결정적이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물건들은 오직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만이 자본으로 바뀐다.

예를 들면, 당신은 당신의 맨손으로 물고기 두어 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막대기를 작살로 만들거나, 섬유들을 모아 그것들을 어망으로 바꾸거나, 당신이 물고기가 더 풍부한 바다에서 고기잡이할 수 있도록 어선을 만든다면 당신은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 간단한 자본재들조차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 해답은 그것이 소비(consumption)에서 생겨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잡은 모든 물고기를 즉각 소비하는 대신

에, 당신이 이 새로운 생산성 제고 도구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일하고 있는 동안 당신이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비축할 수 있도록 당신은 덜 소비할 (혹은 더 많이 잡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있다. 그것은 소비를 포기하는 것—물고기를 더 적게 먹거나 여가 시간을 덜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 포기는 자본이 창출되는 주요 방식이다. 당신은 물론 당신이 당신의 어로 도구들을 만드는 동안 동일한 생활 수준에서 살 수 있도록 물고기를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당신은 그 빌린 것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라도 당신은, 미래에, 당신 자신의 소비의 약간을 포기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권들, 사법 제도들, 시장들, 등등—그 모든 것은 시간과 노력의 상당하는 투자를 필요로 한다—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소비 포기는 자본을 창출하는 유일한 지속 가능한 방식이다.

## 자본과 강제

교훈은 당신이 투자해서(invest) 번영하기 위해서는 저축해야(save)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창출하는 자본과 그것이 생산하는 재화가—정부를 포함하는—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강압이나 사기로—도둑맞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자기들에게 주는, 재산권들의 보호와 법의 지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저축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재산권들의 보장과 법의 지배는 자본의 창출을 촉

진하고, 그러므로 전문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더 높은 생산성과, 이 더 큰 효율이 생산하는 제품들의 자발적인 교환에서 생기는 가치 창출을 촉진한다. 자본의 창출과 참으로 자본주의는—누구도 희생시키지 않고 강제도 없이—가치를 창출한다.

정부 정책은 다른 사람들에 의한 사기와 강압의 결여가 그런 것과 똑같이 자본 형성과 성장에 결정적이다. 저축, 투자 그리고 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람들에게 절약하거나, 투자하거나, 가치를 창출할 유인을 덜 준다. 재분배는 자본을 창출하고, 육성하고, 집중시키는 투자자들에게서 자본을 빼앗아서, (정부 관리들 같이) 그렇게 하는 데 관심이 더 적거나 현재 소비에 쓰는 데 그것을 완전히 소진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그것을 넣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그러한 정책들은 자본재들이 가장 큰 생산성을 산출하도록 함께 작동하는 예민한 투자망—자본 구조(capital structure)—을 분쇄한다.

## 5 자본 구조는 왜 결정적인가

주류 경제학자들은 종종 자본을 동질적인 것으로—각 부분이 어떤 다른 작은 조각과 아주 같은 모래와 같이 균일한 것으로—취급한다. 그들의 계산들, 모형들 그리고 예측들에서, 그것에 관한 유일한 관심은 얼마나 많은 자본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은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그것들 모두가 상이한, 오직 구체적인 자본재들로만 존재하는데, 망치와 낫으로부터 자동차와 트럭, 면직 공장과 자동차 공장, 컴퓨터와 프린터, 금전 등록기와 냉동고, 대부금과 채권(債券), 기타 등등에 이른다.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자본재들이 사용되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자본재들과 어떻게 망(網·network)을 형성하는지, 이 모든 것들은 경제적 결과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대한 실수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1971-)가 자기의 2013년 책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서 하듯이, ‘유일한’ 자본 수익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난센스다. 자본을 구성하는 상이한 자본재들 각각은 상이한 양들의 위험과 잠재적 보상이 달려 있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데 상이한 숙련 수준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을 상이한 목적들에 적용하는 상이한 소유자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이한 종류들의 자본이—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쉽게—상실되거나, 도둑맞거나, 소진되거나, 소비되거나, 세금으로 거두어지거나, 규제되어 없어질 수 있는 많은 상이한 방식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양한 자본재들의 잠재적 수익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정도들로 잠식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용되고 있는 자본재들의 혼합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한때 우리가 말 한 필이 끄는 이륜마차와 계산자를 사용했던 곳에서 자동차와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영구적인, 균일한 ‘수익률(rate of return)’을 가지고 있는 어느 국가의 자본의 영구적인, 균일한 측면은 없다.

## 생산재들의 망

상이한 자본재들이 어떻게 서로 망이 형성되는지는 얼마나 많은 자본재들이 있는지 혹은 그것들을 창출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쓰였는지 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 공급망은 매우 길 수 있어서, 상이한 국가들에 있는 많은 생산자들은 부품들의 창출에 들어가는 다양한 투입물들과 그 다음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만들어 낸다.

애덤 스미스의 간단한 양털 외투 예를 다시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자본재들도 이 최종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한 팀이 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소매업자의 상점과 상점 비품, 도매업자의 창고와 트럭, 제조업자의 직기와 재봉틀, 실 만드는 사람들의 염료 공장과 정방기(精紡機), 목동들의 (양털)깎기와 뭉치는 기계, 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들과 장비를 만드는 사람들의 체련소와 주조

공장,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원료들과 장비를 이동시키는 운송 회사들의 선박과 항공기—더하기 모두 이 간단한 일상용품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를 포함한다. 심지어 그때에도, 이 과정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음식과 주택, 그리고 참으로 그들 자신의 의복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본 장비가 없이는 그 과정은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명백히, 이 자본재들 중 어느 하나의 결여도 전 제조 과정을 파괴하여, 땅에 따라 모든 운영에 대해 부족, 공급 문제 그리고 물류 악몽을 더욱더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염료 공장이 없으면, 완성된 양털을(베) 짜는 사람들과 마무리공(工)들에게 공급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의복을 도매업자, 소매업자 그리고 고객에게 보낼 수 없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전 세계적인 자본재들이 어떻게 함께 땅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재화들이 창출되는 생산성과 효율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절대적으로 결정적이다. 그것은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들뿐만 아니라 고객들에 가는 재화들—이 모든 노력의 전 목적인, 양털 외투와 같은 소비재들—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산성은 자본의 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장들, 기계들, 트럭들 그리고 도구들의 수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 구조, 우리의 자본재들이 어떻게 함께 땅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창출하는지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창출하는지에 결정적이다.

## 자본 구조의 취약성

이 자본 구조의 결정적 중요성은 종종 정치적 몽상가들이나 경제 계획 자들에 의해 간과되는데, 그들은 자본을 그것의 소유자들로부터 빼앗아서, 그것이 생산하는 가치에 대한 아무런 손실 없이—그리고 참으로 종종, 이 새 수중에서는, 그것이 지금 하는 것보다 자본이 더 생산적이게 되고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생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서—다른 사람들에 재분배하거나 ‘더 합리적인(more rational)’ 용도들에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한 진실은 적어도 생산에 대한 거대한 붕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 계획자들은 많은 국가들, 많은 제품 부문들 그리고 많은 과정들에 걸쳐 있는 이 정교한 자본재 구조가, 고객들의 변화하는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본 소유자들에 의해 그 망의 각 부분이 끊임없이 적응되고 재형성되는, 진화적 과정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장 보는 사람들이 양털 옷 대신 무명옷을 수요하기 시작하면, 소매업자들과 도매업자들은 더 많은 면제품들을 주문하기 시작하고, 제조업자들은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 공구를 갈며, 공급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면화를 사기 시작하고, 선적 회사들은 더 많은 원면을 대농장들(plantations)로부터 가져오기 위해 자기들의 노선들을 전환하는데, 거기서는 농장주들이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면화를 재배하고 있을 것이다.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잔물결들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전 과정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서, 자본 구조의 개별 부분들을 필요한 대로 다

시 할당하거나 대체한다.

계획자들은 또한 자본이 동질적이지 않고, 상황이 바뀔 때 모든 자본재들이 다른 용도들에 재할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한 벌의 가위, 재봉틀 혹은 트럭과 같이, 어떤 것들은 많은 상이한 목적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것들이 양털 천에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잘 그것들은 무명천도 자르거나, 깎거나, 수송할 것이다. 그러나 그 천을 짜는 산업 규모 직기들은 새로운, 더 가는 천 실을 다루기 위해 광범위한 적응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최악에는, 그 제조에 사용되는 그것들과 기타 기계들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할지 모르고, 새로운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기계들이 도입되어야 할지 모른다.

약간의 자본재들이 다른 목적에 적응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본 소유가 소유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상황이 바뀔 때, 약간의 자본재들은 감가 상각되어—소유자들에게 실질 손실을 남겨—야 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양털 베 짜는 사람들의 가내 물레들과 베틀들은 일단 수력 정방기(精紡機)들과 직기들이 발명되었을 때 가치가 거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다수의 그런 기계들 자체는 신세계에서 오는 새 면섬유를 처리하도록 적응되어야만 했다. 오늘날, 그런 기계들과 그것들을 간수하는 공장들은 대개 분해되고 파괴되—거나 사무실, 전시 공간 혹은 박물관으로 전환되—는데, 왜냐하면 영국은 지금 자기의 의복의 아주 많은 부분을 인도, 중국, 네팔 그리고 기타 개발 도상 시장들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이다.

국가 산업들조차도 자본 손실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1957년 이후 트라반트(Trabant) 자동차들을 만들었던 동독의 즈비카우(Zwickau)

공장은 일단 동독이 재통일되고 사람들이 더 빠르고, 더 조용하고, 더 깨끗하고, 더 안락한 대안들을 살 수 있었을 때 자기의 전 목적을 잃었고, 텅 빈, 폐선으로 남겨졌다. 참으로, 과거 소련의 많은 구식이고 쓸모없는 자본도 그러했다.

## 나쁜 정책은 자본을 없앤다

그렇다면 자본이 상실될 수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때에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리고 고객들의 필요, 욕망 그리고 기호가 변함에 따라, 자본 구조는 그런 변화들을 반영하도록 적응해야 한다—그리고 약간의 자본은 그저 적응 가능하지 않을 뿐일지 모르고 감가 상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의 소유자들의 잘못된 예측들이나, 틀린 판단이나, 서투른 관리를 포함하여, 자본이 상실될 수 있는 많은 다른 방식들이 있다.

공공 정책도 역시—항상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자본 구조를 붕괴시키고 자본을 파괴할 수 있다. 하나의 예가 많은 국가들이 경험하는 호황-불황 경기 순환이다(또한 경기 순환이라고도 불린다). 호황은—증기 기관, 전기 혹은 인터넷의 발명이 그렇게 했듯이—새로운 기술이 많은 것들을 더 낮게 혹은 더 싸게 만들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편익을 크게 과대평가해서 그것에 기초하여 과잉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황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렇게 통상적이고 그렇게 빈번한 호황-불황 순환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순환들을 연구한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자들 F. A. 하이에크(F. A. Hayek)(1899-1992년)와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1881-1973년)는 그것들이 전형적으로 나쁜 공공 정책에 의해 시동된다고 결론지었다. 그것들은 정부들이 이자율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혹은 유통 중인 화폐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 활동을 자극하고 고용을 증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기들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어, 고객들은 더 많이 쓰고, 자기들이 이제는 살 여유가 있는 값 비싸고 정교한 제품들에 비례적으로 더 많이 쓴다. 낮은 이자율 때문에 빌리는 것이 값싸서, 생산자들은 이 모든 재화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 공장과 장비에 투자함으로써 그 수요의 약간을 손에 넣으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알코올이나 암페타민이 전달하는 기분 좋은 상태 다음에는 숙취의 고통이 뒤따르는 것과 꼭 같이, 이 화폐 및 신용 호황 다음에는 불황이 뒤따른다. 사람들은 덜 저축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의 저금에 대한 수익이 더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들은 모든 새로운 차입에 비해 자기들이 불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부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신용 경색에 직면하여, 가게의 손님들은 더 값싸고 더 기본적인 제품들을 사는 것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이미 공장들을 지었고 사람들이 더 이상 사고 있지 않은 사치품들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장비를 샀다. 그 자본재들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산 라인들은 폐쇄되고, 기계들은 폐기되며, 근로자들은 해고된다—그리고 그런 근로자들의 지출에 의존했던 상점들은 내림세를 겪고, 약간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저리 신용(cheap credit)과 쉽게 번 돈(easy money)에 근거한 가짜 호황이

였지만, 그것은 실질 손실을 낳는다.

—2000년대 초기의 호황과 그 후의 금융 붕괴와 같은—그러한 재난들은 은행가들이나 탐욕이나 기타 대중적인 설명들 중 어느 것에 의해서도 야기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경제 성장을 자극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연약한 자본 구조망을 파열시키는 가짜 신호들을 발신하는, 국가 당국에 의해 야기되었다. 그런 나쁜 정책이 끼친 피해는 어떤 개개 자본 소유자의 실수들이나 서투름, 혹은 어떤 한 기술의 다른 기술에 의한 대체가 야기하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 호황-불황 순환들은 경제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손실은 한 회사나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다. 당국의 근시안적인 정책에 의해 야기된 번영의 환상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본 구조와 전체 경제 속으로 거칠게 들어가는 실질 손실, 해고 및 파산을—그리고 종종 은행들 자체의 지급 불능도—야기한다.

## 결론

그렇다면, 요약해서, 자본은 어떤 파열이나 비용 없이도 뜻대로 이리 저리 뒤섞을 수 있는 어떤 동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그것의 운 좋은 소유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의 영구적인 원천도 아니다. 반대로, 자본은 구체적인 도구들이나 기계들, 혹은 개개 사람들의 구체적인 기능들과 지식의 인적 자본과 같이 오직 구체적인 자본재들로만 존재한다. 이 자본재들 각각은—더 내구적인가 덜 내구적인가, 여러 목적들에 사용될 수 있는가 오직 한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는가, 변화하는 필요에 적응될 수 있는가 아닌가, 적

어도 약간의 잔존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등과 같이—상이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 자본재들에 의해 가능하게 된 생산성과 그 생산성에서 유래하는 소득 증대는 그것들의 소유자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전 주민에 의해 공유된다. 한 국가의 모든 사람은 그것의 도로들, 공익사업망들, 그리고 자기들의 동료 시민들의 읽고 쓰기 능력(literacy)과 기능들로부터 혜택을 얻고, 생산자들이 더 효율적인 공정들과 장비에 투자하는 결과로 더 좋고 더 값싼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향유한다.

그러나 이 편익들은 영구적이지 않다. 자본은 상실되거나 도둑맞을 수 있다. 그것은 감쇠하거나 소비될 수 있다. 그것은 잘못 관리되거나 잘못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서나 소비 대중의 변화하는 기호들에 의해서 여분이 되게 될 수 있다. 자본은 운 좋은 소수를 위한 마법의 돈 나무(magic money tree)가 아니다. 그것은 창출하고, 영양물을 주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것은 하잘것없는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은 망이 형성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생산 과정들은 길고 복잡하며, 세계 도처에서부터 오는 원료들과 부품들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이것들은 그 다음 그것들을 모으고, 처리하고, 조립하기 위해 기타 복잡한 국제적 운영들에 의존한다. 그러한 생산 동안 즉 사용되는 자본재들은 모든 단계에서 서로 호응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국가의 (혹은 세계의) 자본을 통제할 수 있고 어떤 더 가치 있는 결과를 낳도록 비용 없이 그것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대단히 있음직하지 않다. 결국, 많은 혹은 모든 바로 그 자본재들은 이 복잡한 국제적 생산망의 일부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창출되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만족스러운 그림을 제작하기 위하여 조각 그림의 조각들을 재정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조각들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는 쉽게 서로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더 나은 그림을 썩 제작할 것 같지가 않다. 만약 우리가 새 그림을 창작해야 한다면, 새 조각들을 창작하고 조립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자본재들을 창출하여 그것들을 일관성 있는 생산 구조로 서로 맞출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떤 계획자, 독재자 혹은 입법자의 변덕스럽고 정치적으로 행해진 결정들에 의해서보다는 시장에서의 길고, 지속적이고, 진화적인 시행착오 과정에 의해서 더 잘 행해진다.

## 6 무엇이 자본주의를 작동하게 하는가

우리가 보았듯이, 자본주의에 고유하거나 심지어 그것에 필수적이지도 않지만, 그것들이 확실히 그것의 성공에 기여하기 때문에 흔히 자본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이것들 가운데는 자기 이익, 사유 재산, 평화, 이윤, 경쟁, 전문화 그리고 시장들이 있다.

### 자기 이익, 재산, 이윤 그리고 유인들

*자기 이익.* 자본주의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만, 탐욕을 별한다. 그들은 아주 다르다.

탐욕(*greed*)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나 감정에 대한 관심 없이,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지배적인 법률들, 규정들 및 관행들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이, 자기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암시한다. 그것은 또한 자기의 필요와 상관없이 축적하는 것을 위하여 물건들을 축적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오직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고, 서로를 공정하게 대우하며, 약속을 존중할 때에만 작동할 수 있다. 다행히, 많은 다른 구매자들과 판매자들로부터의 경쟁 덕분에, 사업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누구든 이내 고객들과 공급자들이 자기들을 버리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번영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들을 무시하기는커녕, 자본주의는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에 봉사하고 싶어 하게 한다.

대조적으로, 자기 이익(self-interest)은, 그것 없이는 우리 어느 누구도 생존하지 못할, 타고난 인간 특성이다. 도덕적 질문은 그것을 어떻게 억제하고 그것을 자기 잇속만 차리는 사람들의, 혼란보다는, 기능하는 사회를 낳는 데로 돌리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다행히,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이용한다.

자기 이익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기들에게 부과된 것들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목표, 비전, 목적 그리고 야망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기들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가족들과 자기들이 사랑하고 걱정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런 꿈들을 추구한다. 그들은, 예를 들면 거래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데, 그것이 양측의 상호 이익이 될 때이다. 그러나 그 동기가 자기 이익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거래를 통한 협력은—애덤 스미스가 자기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듯이—일반적으로 이로운 사회적 결과를 낳는다.

**사유 재산.** 사유 재산(private property)은 자본주의에 고유하지 않지만, 그것이 잘 작동하는 데 필요하다. 아마도 예상외로, 사유 재산은 근면하고, 서로 존중하고, 정직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촉진한다.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의 재산보다 더 돌본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들에서, 아파트 건물들의 계단들과 공유 영역들은 방치되고 노후화되지만, 아파트들

자체는 그것들의 소유자들에 의해 아름답게 간수된다.

사람들은 또한 자기들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들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어, 자신들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이익이 된다. 소련이나 모택동의 중국의 집단 농장들은 광범위한 기아 외에는 생산한 것이 거의 없는 반면, 자본주의 사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적으로 운영되는 농장들은 가능한 최대의 수확을 산출하도록 주의 깊게 관리된다. 누구도 소유하지 않는 세계 대양들은 남획되는 반면에, 스코틀랜드의 연어족(族)들은 그것들이 헤엄치는 강들의 사적 소유자들에 의해 지독하게 보호되는데, 그들의 생계는 그것들이 스포츠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것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재산으로부터의 가치를 보호하고, 영양물을 주고,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확신해야 한다. 재산이 어떻게 보유되는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으로부터 무슨 편익들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백한 규칙들이 있어야 한다. 재산—토지나 자본재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도—의 판매나 구매를 중심으로 한 협정들은 명백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도둑질과 사기는 거부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만약 그것들이 발생하면 어떤 사법 및 복구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그때에만 사람들은 거래하는 데나, 위험을 수반하고 열매를 맺는 데 여러 해가 걸릴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는 데, 미래에 마음을 쏟을 수 있다. 자본주의는 오직 그러한 세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당국은 그 밖의 모든 사람과 똑같은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어떤 집단들을 편애하는 데 자기들의 정치적 혹은 사

법적 권력을 사용할 수 없고 어떤 미리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들을 왜곡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시장들을 나쁜 상태에 빠뜨릴, 그리고 효율적인 자본주의 생산의 복잡한 망을 파괴할, 위험을 무릅쓴다.

이윤. 이윤(profit)도 역시 자본주의에 고유하지 않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가 종사하는 모든 활동으로부터 그것을 추구하는데, 왜냐하면 재정적 이득 외에 많은 종류의 이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건, 우리는 나타나는 편익이 우리가 투입한 시간과 노력보다 더 클 것을 희망한다. 그 경관은 등산의 가치가 있었는가? 당신은 그 긴 강의 동안 죽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부터 정말로 유용한 어떤 것을 배웠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윤을 얻었다.

상업에서조차, 이윤은 그저 재정적 이득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히 돈을 벌기 위해—반드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자신과 자기 가족을 부양할 만큼 충분히 벌기 위해—실업계에 들어간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비참하고 계속적으로 지치는 것을 희생으로 이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손해일 것이다. 상이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제생활에서 찾는 비재정적 이윤 가운데는 자기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 여가의 기회, 그리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유용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에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서 얻는 만족은 돈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기업가들이 버는 재정적 이윤은, 어떤 종류의 착취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생기는 것이 틀림없다고 종종 이야기된

다. 그러나 그때 고용인이 없는 기업가들도 여전히 이윤을 벌 수 있는데, 이 점은 그 주장을 기각하는 것 같다. 둘째, 특정 기업가를 위해 일하도록 강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들이 왜 자기들을 착취하는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들은 쉽게 다른 고용주에게 갈 수도 있고 독립(獨力)으로 일할 수도 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주장은 이윤이, 그리고 가치가, 창출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기업가들이 고용인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그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하면 기업가들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고정된 가치 항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가치는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이지, 사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은 특정 꽃병을 대단히 귀중한 것으로 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폐물로 간주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물들을 다르게 평가한다는 바로 그 이유로 그들은 그것들을 거래할 수 있고 각자는 자신이 상태가 더 나아졌다고 여긴다. 기업가는 고용인들로부터 가치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 자기들의 재능을 관리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

*기업가적 이윤.* 기업가의 이윤은 많은 원천들에서 생길지 모른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사물 평가에서의 차이들을 이용하는 것에서, 혹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투입물들, 노동, 제조 공정들, 마케팅 그리고 유통을 숨써 있게 결집시키는 것에서, 생길지 모른다. 혹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한 기회들을 탐지하는 것에서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약간의 기업가들은—소니가 자기의 워크맨(Walkman)

개인용 음악 재생기를 가지고 했거나, 스타벅스가 자기들의 전문 커피점들을 가지고 했듯이—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잠재적 수요를 탐지함으로써 이윤을 얻는다. 때때로, 기업가들은, 엘리 휘트니(Eli Whitney)가 조면기(면화에서 솜과 씨를 분리하는 기계)를 가지고 했고 토머스 에디슨(Thomas Edison)이 백열전구를 가지고 했듯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함으로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이 진공 청소기들을 가지고 했고 애플이 아이폰(iPhone)을 가지고 했듯이, 기존 기술들을 새 제품들과 공정들을 창출하는 데 적용함으로써 이윤을 얻는다.

기업가들은,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을 가지고 했듯이, 고객들의 편의를 제고할 방법들을 찾거나, 우버(Uber), 에어비엔비(AirBnB · Air Bed and Breakfast) 그리고 많은 다른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앱들이 했듯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들과 작업 방식들을 개발할지 모른다. 그리고 규제 개혁도 역시 새로운 기업가적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벨 전화 회사와 영국에서 브리티시 텔레콤 독점의 분리 후에 이동 전화망들이 급속하게 성장했다.

틀림없이, 소수의 사람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서 엄청난 성공이 되는 어떤 것을 생산하거나 발견하여, 행운의 사건들로부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끔씩 자기들이 중고점에서 산 그림이 실제로 옛 거장의 그림이라는 점을 정말 발견한다. 그러나 소위 그러한 순전한 기업가적 이윤(pure entrepreneurial profit)이 그저 행운의 문제일 뿐이고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실제로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기들의 제품을 판촉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들은 실

패와 거부를 겪지만, 자기들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한다. 12개의 출판사가 J. K. 롤링(J. K. Rowling)의 첫 《해리 포터(Harry Potter)》 소설을 거부한 후에야 블룸스베리(Bloomsbury)가 그것을—그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큰 기대 없이—받아들였다.

유인. 그러므로 기업가적 이윤은 행운이 거의 아니고 대개 행운조차도 거의 아니다. 그것은 비전, 지성, 시간, 노력, 숙련, 위험 감수 그리고 인내의 투자를 요구하는 능동적인 추구이다. 대부분의 그러한 노력들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는 노력들은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그 이상의 진보의 기초들을 세운다.

그것은 기업가 정신과 그것이 의존하는 개인적 자질들의 투자를 장려하고 보상하는 법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문화를 가지는 것을 필수적이게 한다. 이것들 가운데서 주된 것은, 자기들의 일이 파괴되거나 자기들의 창작품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외국 군대들과 국내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정부에 의해서도—도둑맞지 않고, 자기들이 그러한 투자들을 안심하고 할 수 있다고 기업가들이 알도록 하기 위한, 평화의 보장과 법의 지배이다. 예를 들어, 실패의 위험이 이미 높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자기들의 위험과 비용을 더욱더 증가시키는, 높은 세금과 성가신 규제로 쉽게 용기를 잃는다.

## 경쟁의 과정

자본주의를 아주 동태적이게 하는 다른 것은 경쟁이다. 경쟁에서 앞서고, 자기들의 고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게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

해서는, 생산자들은 자기들이 제공하는 것과 자기들이 그것을 생산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선해야 한다.

경제학 교과서들은 경쟁의 이런 동태적 효과를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 너무나 자주, 그들은 ‘완전 경쟁(perfect competition)’—다수의 비슷한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동일한 재화들을 거래하는 이론적인 상태—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은 모두 다르다. 그리고 판매자들은 자기들을, 동일한 제품들을 거래하는 것과, 구별하고—구매자들에게 독특하고 경쟁자보다 더 바람직한 어떤 것을 제공하고—싶어한다.

불행하게도, ‘완전 경쟁’ 개념이 아주 널리 퍼져 있어서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조차도 경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완전한(perfect)’이라는 오도하는 용어는 자본주의의 비판자들에게(우호적인 비판자들조차도) 시장들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 정부들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현실 시장들은 결코 ‘완전’ 균형에 정착하지 않는다. 경쟁은 적응, 혁신 그리고 개선의 끊임없는 과정이고, 이것은 경쟁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큰 편익이다. 기업가들이 우리의 변화하는 필요들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함에 따라, 새 제품들과 과정들이 덜 효과적인 것들을 대신한다. 고객들이 이 동태적인 과정을 움직이지, 관리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시장들을 ‘완전하게’ 하려는 관리들의 시도들은 그것들을 그저 어떤 특정 상태에 동결할 뿐이다. 그러나 현실 경쟁 아래서는, 고객들은 생산자들로부터 더욱더 좋은 재화들을 요구하는 데 인정사정없고, 생산자들은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전달하는 더욱더 좋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낸다.

약간의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시장 경쟁은 생물학적 경쟁과 같지 않은데, 여기서는 자원들의 고정된 공급량이 있고, 누가 그것들을 얻느냐에 생사가 달려 있다. 시장 경쟁은 자원들을 창출하고 총 가치를 확대한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매일의 시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원들을 저가치 용도에서 고가치 용도로 계속해서 전환해야 한다. 누구도 죽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다르게 일해야 할 뿐이다.

## 전문화와 시장들

*전문화와 그것의 편익들.* 자본재는 매우 전문적일 수 있다. 많은 것들은 오로지 하나의 특정 제품이나 부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어떤 경우들에는 그것들은 제품들과 부품들을 수천 배 더 빠르게 혹은 값싸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그것들은 모든 것을 손으로 하는 것보다 1,000의 단위로 훨씬 더 빠르고 더 값싸게 강철이 채광되어 용해되고, 엔진 블록들(engine blocks · 실린더 헤드 아래로부터 크랭크 케이스 상부까지의 블록 전체)이 구조되어 완성되고, 자동차들이 조립될 수 있게 한다. 기능들도 또한 전문화된다. 실내 장식가들, 지붕 수리하는 사람들, 유리 장수들, 전기 기사들 그리고 배관공들은 우리의 집과 서비스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낮고 안전하게 간수할 수 있는 반면, 전문의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비전문의 동료들보다 우리의 의료 질병들에 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질병에 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어떻게 방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세탁기를 고치는 것이 최선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 장비를 소유할 수도 없다. 참으로, 만약 우리 각각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다면 매우 낭비적일 것이다. 대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전문화로부터 이익을 얻는데, 그들이 얻는 기능들과 자본재들 양쪽 다에서 그렇다. 우리의 자동차들, 시계들, 이발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전문화 덕분에 더 값싸고 더 좋아진다.

시장들. 사실상, 전문화가 자본주의를 아주 생산적이게 하여 그것이 만들어 내는 모든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분배하는 똑같이 효율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절박하게 된다. 이것은 시장들이 자본주의와 나란히 발전한 이유이다. 그것들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막대한 잉여물들을 거래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산성의 과실들로부터도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시장 교환은 상이한 사람들이 똑같은 재화와 서비스를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가치는 무게나 크기 같이 객관적인 사물 특질이 아니다. 가치는 오직 보는 사람의 마음에만 존재한다. 우리가 덜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과, 직접적으로나 돈을 사용하여, 교환한 후에, 우리는—우리가 거래하는 사람이 그렇듯이—우리 자신의 상태가 더 나아졌다고 여긴다. 비록 우리의 교환이 새로운 재화를 창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총 가치를 증가시켰다.

자본주의의 막대한 생산성을 고려하면, 이것은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규모로 기계화된 경작, 파종 및 수확 방법들을 사용하는 곡물 농민은 생산되는 밀이나 보리의 오직 아주 적은 부분만 개인적

으로 소비할 수 있고, 그 농작물을 오직 그것이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소중히 여긴다. 매일 녹로(轆轤·오지그릇을 만드는데 쓰는 물레)에서 떨어지는 모든 컵들과 사발들에 대해 개인적인 쓸모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도공(陶工·옹기장이)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조업자, 구두 만드는 사람, 숙련된 수채화가 혹은 식당 주인도 그렇다. 그러나 시장들은 자기들의 모든 제품들을 그것들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고객들에게 가져다준다.

교환은 옛날부터 있었다. 그러나 시장들이 성장하고 확립됨에 따라, 상이한 것들이 보통 교환되는 비율들—그것들의 가격들—은 더욱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예측 가능하게 된다. 그것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편익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자원 투자가 어디에서 가장 수지맞을 것 같은지에 관해 더 잘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생산자들이 자기들의 재화에 대해 최상의 가격을 얻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웹에서 이용 가능한 전화들의 보급으로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오지인 지역들에 있는 소농들도 국제 식량 시장들을 점검해서 도매업자들이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농작물에 대해 상당히 괜찮은 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선물(先物) 시장들을 한 번 보는 것으로도 자기들이 상당한 수익의 최상의 가망을 가지기 위해 무엇을, 그리고 언제, 심어야 할지 그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장들은 법률과 관행에 지배되지만, 변화하는 고객 수요에도 적응해야 한다. 그것들은 공유 경제 애플처럼, 새 제품들과 과정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모든 혁신은 시장 규제자들에게 도전장을 제기한다. 새 제품이 거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종종 경쟁을 두려워하는 현직자들의

로비 활동에 의해 자극되는, 진정한 안전 우려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장들을 개방적이게 유지함으로써 얻는 편익들도 또한 있는데, 특히 공급자들이 온라인에서 즉각 그리고 쉽게 평가될 수 있을 때 그러하다. 우리가 혁신을 허용해야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의 지지자들은 국가가 자본재를 소유해서도 그 사용을 지시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치가들과 공무원들이 소비자들의 넓은 필요들보다는 좁은 정치적 이익들에 너무 좌우된다고 본다. 기껏해야, 국가는 자본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원칙들—개인의 권리들, 정의 그리고 비강제적인 협동—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강제력—경찰, 군대, 법원 그리고 감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기득 이익들의 먹이가 되며, 그래서 정부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지지자들은 개인들이 대부분의 것들을 독립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집합적 사업들—이를테면, 방위나 새 공항과 도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결정을 내리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민주주의를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필요할 때는, 제거하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그 자체가 제한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정치와 같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없는 결정들에 정치를 도입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51퍼센트의 다수파가 소수파 49퍼센트의

생활의 모든 측면을 결정할 수 있다거나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그들을 착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의 문화를 필요로 한다. 시민들과 정치인들 양쪽 다 이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그들이 민주주의의 업적을 자랑으로 여겨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더 많은 것들을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것은 긴장과 갈등의 문을 열고 우리 모두를 다수파에 의한 착취에 노출되게 방치한다.

헌법들은 민주주의를 자기가 잘 하는 기능들과 소수파들을 보호하는 기능들에 집중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개정하는 데 초(超)다수결이 필요하게 하여, 비교적 영구적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문서도 개인의 권리들을 보장할 수 없고 자본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제도들을 지킬 수 없다. 오직 가슴, 마음, 도덕, 문화 그리고 관용만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

## 7 자본주의의 도덕적 차원

###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도덕적 비전

자기의 2014년 책 《자본주의가 어때?(Why Not Capitalism?)》에서, 미국 정치학자 제이슨 브레넌(Jason Brennan)(1979- )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도덕적 논거를 대비한다.

좋은 사회에 관한 사회주의 관념은 잘 알려져 있다고, 그는 말한다. 가족 야영 여행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은 합의된 목적을 향해 미덕과 공공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에 집중한다. 자본주의는 그러한 조화로운 협동을 결코 달성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이익과 탐욕의 악덕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우리가 하여간 자본주의를 참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사회주의를 할 만큼 충분히 선하지 못하고, 이기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살 도덕적 힘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똑같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자본주의에 대해 행해질 수 있다고, 브레넌은 말한다. 그것은 상호성을 통한 상호 원조(mutual assistance)에 근거해 있다. 그것은 강압과 착취를 거부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보상하는데, 이것은 신뢰와 협력을 촉진한다. 그것은 사람들을 권력자들에 의해 선택된

어떤 단일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강제하기보다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목적들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추구할 수 있게 한다. 바로 이 다양성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 그들의 상이한 야망들과 생활양식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경제 기계에서의 단순한 부품으로서보다는 개인으로서의 그들에 대한 관심을 촉진한다. 이 인간적인 관심은 자선 단체, 교회 그리고 시민 사회의 기타 자발적인 기관들—모두 자본주의 사회가 발생시키는 부에 의해 힘이 보태진다—을 통해 표현된다.

이러한 자본주의 비전은 또한 더욱 현실적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원칙들은 작은 집단들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작동할 수 있는 반면에, 가족 야영 여행의 사회주의 모형은 낯선 사람들이 추가될 때 이내 붕괴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도덕적 박약의 탓으로 돌려 봤자 소용없다. 자본주의는 우리가 성자 같은 이타주의자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타고난 자기 이익을 사회적 편익으로 전환한다. 재능, 집중, 정력 그리고 생산적 조직을 보상함으로써, 그것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혁신, 발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로 돌린다.

## 자본주의는 가치를 창출하고 부를 확산시킨다

자본주의가 가치와 부를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능력은 그것의 도덕적 미덕들 중 또 하나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제공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고도로 생산적인 자본 장비의 적용을 통하여, 그것은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의 필요도 만족시킬 수 있게 한다.

예상 밖이 아니게도, 자본주의의 성장은 인간 소득과 부의 주된 증가를 낳았다. 긴 인간 역사 전개의 대부분 동안, 평균 소득은 생존 수준에 있었는데, 현대의 관점에서 하루에 아마도 1-3달러였을 것이다. 그러나 1800년경, 소득이 매우 갑자기 위쪽으로 급등했고, 그것의 하늘을 향한 상승은 여전히 계속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이익을 보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90년에, 세계 인구의 약 40퍼센트는 하루에 1.90달러 미만에 살았다. 오늘날에는 그것은 10퍼센트 미만이다. 빈곤은 지난 3,500년간보다 지난 35년간에 더 많이 줄었다.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또한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게도 한다. 경쟁은 생산자들에게 혁신하고, 가격을 억제하고, 수준을 올리게 강요한다. 그 결과, 모든 필수품들—식품, 주거, 연료 그리고 의복—은 지금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값싸고 품질이 더 높다. 1800년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신선한 육류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오늘날에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1800년에는, 한 시간의 불빛을 제공하는 양초가 여섯 시간의 노동의 비용이 들었다고, 영국 정치학자이자 자연 과학자인 맷 리들리(Matt Ridley)(1958-)가 자기의 2011년 책 《합리적 낙관주의자(The Rational Optimist)》에서 말한다. 1880년대까지는, 경유 램프로부터 똑같은 불빛을 제공하는 데 15분의 노동이 들었다. 이제, LED를 가지고, 그것은 0.5초가 든다. 조명의 관점에서, 우리는 1800년보다 43,200배 상태가 더 낫다.

이 막대한 부 상승은 오늘날 인류가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키가 크고, 더 오래 사는 이유이다. 그것은 어떤 불가피한 기

술 발달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결국, 만약 자본주의의 유인들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술 발전들에 박차를 가하는가? 왜 대풍요화(Great Enrichment)가 그렇게 갑자기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서독인들이 사치스러운 고도 기술 메르세데스와 BMW를 몰고 있을 때, 동유럽인들은 믿을 수 없고, 불편하고, 오염을 많이 시키는 트라반트(Trabant)와 유고(Yugo)를 소유하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었던가?

더 나은 기술이 확실히 우리의 생활 수준을 높이지만, 그것을 개발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자본주의이다. 재산권들은 그것에 필수적이다.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그것의 보상을 거둘 수 있다고 알고서, 연구, 발명 그리고 개발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단과 자신을 준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술들과 제품들은 엄청나게 효율적인 자본주의 생산과 시장 분배를 통해 넓고 빠르게 확산된다.

그것은 1980년대 이래로 세계 빈곤의 급속한 하락이 대개 중국, 인도, 동유럽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국제 무역과 자본주의 원칙들에 대한 개방에 기인하는 이유이다.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일본 그리고 남한은 제2차 세계 대전 말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몇몇이었다. 그러나 그저 몇 십 년만의 무역과 자본주의로 그들은—자기들 가까이 있는 이웃들 북한,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혹은 심지어 오직 최근해야 따라잡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중국과도 달리—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몇몇으로 바뀌었다. 그런 예들은 자본주의와 무역으로부터 얻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1달러 더 가지는 것은 생과 사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

## 재산권들의 인간 편익들

재산권들은 그저 사람들이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 자원들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증가시킬 유인을 제공한다. 사유 재산은 공동으로 소유되거나 누구에 의해서도 소유되지 않는 재산보다 훨씬 더 잘 돌보아지고, 더 생산적으로 사용된다. 명백한 예는 소련에서의, 그리고 마오의 중국에서의, 집단 농장들의 참담한 실패인데, 이것들은 오직 기아와 궁핍만 낳았다. 어업은 또 하나의 예이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소유되고 있지 않으므로, 바닷물고기족(族)들은 종종 남획된다. 거래할 수 있는 할당들—효과적으로, 물고기에 대한 재산권—을 어선단들에게 주는, 오직 아이슬란드와 뉴질랜드 같은 곳들에서만, 어족(魚族)들이 잘 보호된다.

재산권들은 또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자신을 표현하고 개발할 수 있게도 한다. 재산은 다른 사람들에 의한, 혹은 심지어 국가에 의해서도, 침해에 대한 피난소를 제공한다. 영국-오스트리아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F. A. 하이에크(F. A. Hayek)(1899-1992년)가 자기의 1944년 책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에서 지적했듯이, 만약 적대적인 정부가 집회장, 종이 공급량 그리고 매체를 통제한다면 사람들은 상이한 정치적 견해들을 심지어 표현하고 토론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

재산은 또한 우리 안의 타고난 어떤 것을 만족시키기도 한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은 우리 자신의 확장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어릴 때 수집했거나, 친한 친구들이 우리에게 주었거나, 우리가 갔다 온 곳들이나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들을 포함할

지 모른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편익, 편리 그리고 독립을 주는 (자동차와 세탁기 같은) 것들일지 모른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저 가지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개발하는 것을 즐길 뿐일 것들일지 모른다. 예를 들어, 자기 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집에 관해 이렇게 말하곤 하고, 많은 기업가들은 자기들 자신의 기업들에 관해 그렇게 말하곤 한다.

몇몇 반자본주의자들은 자원들이, 소유될 것이 아니라,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중한 자원들은 그저 존재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나눠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창출되어야 한다. 불모의 사막은 어떤 사람이 그것의 잠재력을 보고서, 농사짓기 위해 그것을 개간하거나, 유정을 파거나, 그것 위에 건축하기 전까지는 그저 불모의 사막일 뿐이다. 창출하는 데 어떤 사람의 통찰력과 노력이 필요했던 자원을 강제적으로 나눠 가지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왜냐하면 만약 누가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왜 그런 노력을 하려 들까? 그들은 빈둥거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한 몫을 기다리는 편이 제일 나올지 모른다.

## 평등과 번영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이것이 어떻게 재분배를 정당화하는가에 관해 많은 글이 쓰였다. 그러나 사실들은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불평등 수치들은 보통 세금과 사회 급부금이 고려되기 전의 소득을 고찰한다. 그러나 최고 소득자들

이 세금을 납부하고 최저 소득자들이 복지, 실업, 질병 혹은 퇴직 급부금들을 받은 후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 재분배는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보건 의료와 학교 교육이 종종 그렇듯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서비스들을 포함할 때 그 차이는 더욱더 좁아진다. 더군다나, 통계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동태적인 효과도 무시한다. 한 연례 조사의 논리에 근거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최근에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들을 졸업한 젊은이들이다. 그들의 큰 학자금 대출은 그들에게 ‘음의 부(negative wealth)’를 준다. 그러나 자기들의 명성 있는 자격증으로 무장하여, 바로 이 집단은 결국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속할 것이다.

불평등은 교환의 자연적인 결과이다. 수천의 사람들 각각이 대중가수의 콘서트에 참가하기 위해 몇 달러를 지불할 때, 그 가수는 그날 밤을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끝내고, 청중은 더 적은 달러를 가지고 끝낸다. 불평등이 더욱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매 공연 후에 가수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일 것이다. 재정적 평등은 끊임없는 재분배를 필요로 한다—이것은 이 가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공연을 계속할 이유를 남겨 두지 않는다.

그것은 그[그 가수] 밖의 모든 사람에게 거래의 비재정적 편익이 거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측이 가치를 얻지 못한다면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다. 콘서트에 가는 사람들은 그날 밤을 몇 달러 더 가난해지는 것으로 끝낼지 모르지만, 교환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찬양하는 어떤 사람의 노래를 듣는 들뜬 기분과 즐거움을 가졌다. 그 비재정적인 가치는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재분배될 수 없다.

가치 있는 것들을 재분배하는 면에서, 재정 자원들의 재분배는 단지 반쪽 효과만 있다.

## 평등을 정의하는 문제

자본주의 하에서는, 재정적 불평등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혹은 빈약하게 봉사하느냐를 반영한다. 재정적 보상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 봉사하는 것으로부터만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 서비스의 대가로 기꺼이 주는 것을 반영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가치를 평가하고 당신의 보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이사회도 위원회도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그것을 판단한다.

참으로, 국가의 어떤 이사회나 위원회도 보상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근거에서 그들은 록 스타, 유명 스포츠 선수, 심해 잠수부, 교사, 용접공 혹은 간호사에 의해 산출되는, 사회에 대한 가치를 결정할까? 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각자가 얼마나 많이 지불 받아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결정할까? 설사 그들이 쉬운 길을 선택하여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공정도 평등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어떤 일자리들은 위험하고, 다른 일자리들은 안전하다. 어떤 것들은 즐길 수 있고 다양한데, 어떤 것들은 지루하고 좌절감을 낳게 한다. 어떤 것들은 쉽고, 다른 것들은 큰 집중을 요한다. 어떤 일터들은 즐겁고 편리한데,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평등한 보수는 심리적 소득에서의 이런 차이들을 평등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이 그것

을 자동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위험하거나 불쾌하거나 큰 숙련을 요하는 일들을 하는 데 더 높은 보수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지지자들에게, 재정적 재분배는 불합리한데, 왜냐하면 가치와 보상을 결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편향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비재정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필요한데, 왜냐하면 시장이 빠르고 자동적으로 더 잘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재분배가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능과 노고에서 생기는 보상에 대해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개인들이, 심지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도, 더 잘 사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훔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정부가 그것을 하는 것을—특히,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결정들이 관리들의 변덕으로 요약될 것이기 때문에—허용해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한다면, 자본주의가 최상의 방법인 것 같다. 오늘날의 전 세계적 무역 경제에서는, 더 빨리 더 부유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 더군다나, 자본은 우연히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든다. 생산성을 올림으로써, 그것은 우리 각각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준다. 그것은 우리가 더 적게 일해도, 그리고 더 편안한 상황에서,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민들이 더 부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박애적인 경향이 있어서, 자기들의 소득에서 더 많이 자선단체들에 보낸다. 그러나 심지어 자선적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부유

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난한 것이 가난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난한 것보다 여전히 훨씬 더 낫다(소득의 면에서, 거의 10배나 더 낫다).

## 자본주의는 인간관계를 증진한다

미국 정치 사상가 아인 랜드(Ayn Rand)(1905-82년)는 자본주의만이 자기를 유지하는 데 강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유일하게 도덕적인 사회 체제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것은 오직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만 작동한다. 아무도 그 밖의 어떤 사람과 상대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당신과 거래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치 있는 어떤 것—가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또한 차별도 몰아낸다. 이것을 달성하는 데 어떤 법률도 규제도 필요하지 않다. 일정한 성, 인종, 종교 혹은 문화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를 거부했거나 자기의 제품을 특정 집단들 출신의 고객들에게 팔거나 임대하기를 거부한 기업은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않은 경쟁자들에 의해 이내 약화돼 있을 것이다. 참으로, 규제들은 종종 소수파들에게 몹시 해롭다. 예를 들어, 최저 임금 규제는 고용주들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더 값비싸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검증되지 않은 젊은이들이나 특정 지방의 언어에 덜 유창하거나 문화 규범들에 덜 친숙할지 모르는 이민자들—그 법률이 도우려고 작정한 바로 그 종류들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가르치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

흥미롭게도, 자본주의는 더 높은 여성 식자율(識字率)과 관련 있는데, 후자는 가족 건강, 교육 그리고 번영의 중요한 결정 인자이다. 여

성의 읽고 쓰기 능력은 르네상스 시대 무역의 증가와 나란히 급속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남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상품들을 파느라 향해 중이거나 밖에 있는 동안 기업을 관리하는 것은 자기들의 아내에게 맡겨지곤 했다. 그래서 여성의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과 같다.

## 같은 것을 같은 것과 비교하기

반복하자면,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현실 자본주의와 비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회주의를 (신뢰와 협동 같은) 선량한 동기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의 면에서, 그리고 자본주의를 (탐욕과 같은) 나쁜 동기들의 면에서, 규정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만, 사실들은 그것들을 기각한다. 자본주의는 먹느냐 먹히느냐가 아니고 협동적이다. 사실상 그것은 신뢰로 움직이고 체계적으로 반사회적 동기들을 처벌하는 놀랄 정도로 협동적인 사회 질서이다.

자본주의는 또한 현실적인 사회 체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들을—보편적으로 유덕하고 이타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완전한 사회에 관한 어떤 달성 불가능한 비전에 대해서가 아니라—실제로 작동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관해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사람들이, 권고나 강압에 의해, 천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자기 이익을 이용하도록, 그리고 이로운 사회적 결과에 이마지하게 그것을 돌리도

록, 작동한다. 그것은 또한 도덕적으로 일관성 있기도 하다. 그것은 국가가 그것들을 한다는 바로 그 이유로 도둑질, 독점, 정실(情實) 그리고 강압이 선하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비전은 또한 작은 집단을 넘어 확대될 수도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은 이미 자본주의이거나, 자본주의 국가들과 거래한다. 자본주의가 재산권, 정직 그리고 계약적 협정의 존중과 같은 일반 규칙들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사회들이 어떤 집합적인 목표에 의해 지휘될 때, 큰 규모는 더욱더 큰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것들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느냐에 관해, 그리고 각 개인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관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목표들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행해질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의견 충돌의 여지가 더 크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결정들을 하고 어떤 의견 충돌도 추방할 만큼 무자비한 지도자들에 프리미엄을 붙인다.

## 8 자본주의의 간단한 역사

### 자본주의를 비틀어서 이론에 맞추기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그저 불가피한 역사의 진행에서의 한 단계로서만 보았다. 결국, 자본주의는 자기의 내적인 모순들에 의해 붕괴되어 공산주의가 대신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 역사 분석은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과 사회 이론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에 관한 많은 학구적이고 지적인 논의는 그것을 오직 그것의 역사적 발전의 면에서만 진술하는 반면, 오늘날의 자본주의 논의는 오직 그것을 약화시킨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만 집중한다.

그러므로 이 선입관들은 이미 그것의 비판자들의 목적들에 이바지하는 과도하는 자본주의 견해에 이른다. 더 나쁜게는, 사실들 자체가 이론에 맞도록 그것들이 종종 왜곡된다. 자본주의로 서술되지만 사실은 그 실제 개념과 불충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제 제도들에 관해 발달사들이 쓰인다. 더군다나, 자본주의는 자기가 제거하겠다고 결코 약속하지 않았던 사회 문제들에 대해, 그리고 기업들의 행위이기보다 정치인들의 행위에 더 빚지고 있는 경제 문제들에 대해, 비난을 받는다.

자기의 순수 형태로 결코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었던 어떤 것의 역

사나, 심지어 서사문도, 쓰기가 어렵다. 이 점은 순수 사회주의 개념을 그것의 실제적인 성과—독재 정권, 추방, 대량 학살, 비참한 생태계 실수, 기아, 암울하게 낮은 경제 성장 그리고 결핍으로 특징지어지는 역사—의 비판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종종 제기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은 그것의 실제적인 표현들에 덜 당황한다. 그들은 그것의 문제들을 인정하지만, 그것의 역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확산되는 부, 민주주의, 개인적 자유 그리고 평화로 특징지어진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설사 순수 자본주의가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의 원칙들의 어떤 판을 채택한 사회들의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여전히 교훈적이다.

## 국가 주도 상업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기간은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와,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군주들과 대신들의 욕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국가들에게 그것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다른 국가들에게 팔고 그것들이 할 수 있는 한 적게 다른 국가들로부터 사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자기들 자신의 소득을 증대하고 가능한 한 많은 부를—금과 은으로—축적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오직 파는 사람들만이 교환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믿었는데, 왜냐하면 결국 돈을 가지는 사람들은 판매자들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금고에 흘러들어오는 금과 은은 국가의 번영과 힘의 원천이자 척도였다.

그러므로 해외 무역 정책과 국내 상업 정책은 고도로 보호주의적이

게 되었다. 수출 시장을 위해 생산한 사람들에게는 풍부한 보조금이 제공되었다. 수입품들에는 높은 관세와 기타 장애물들이 부과되었다.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자기들의 부가 프랑스, 스페인 혹은 네덜란드 같은 적국들로 새지 않도록 자기들의 식민지들이 그 밖의 어떤 국가와도 거래하는 것을 금하였다. 전쟁은 다른 국가들의 부를 약탈함으로써 국부를 증가시키는 정당한 방식으로 간주되었다. 국내에서는, 성시(城市)들(towns)도 다른 성시들에서 온 제조업자들과 장인들에 대해 비슷한 장벽들을 세운 반면, 동업 조합들—길드들—은 경쟁자들을 안에 들이지 않도록 자기들 자신의 직업들을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길드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회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노동 절약 설비들을 불법화해 줄 것을 군주에게 청원하기조차 했고, 자기들의 사업 연고자들에게 풀이나 소금 같은 필수품들에 대한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보상하였다.

이것은 **중상주의(mercantilism)**—소비자들보다는 생산자들을 위해 설계된 체제—였다. 그것은 종종 초기 자본주의로 희화화(戲畫化) 되는데, 왜냐하면 기업들이 창설되고 있었고, 자본, 제조업, 시장들 그리고 무역이 모두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다른 측면들에서는 그것은 자본주의 개념과 매우 달랐다. 그것은 권력자들이 국가의 경제 활동을 조종하려고 하는 통제와 관세에 시달렸다. 그 통제는 그 다음에는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국가의 강제력에 달려 있었다. 그것은 연고주의(cronyism), 도둑질 그리고 강압을 정당화하였다. 만약 자본주의가 어디엔가 존재했다면, 그것은 성시(城市)들 바깥의 오직 소위 **특별 행정구들(liberties)**에서만 존재했는데, 거기서는 길드와 민정 당국(civil authorities)의 지배가 유효

하지 않았고, 거기서는 자유 상업, 혁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중상주의 체제를 분석했다. 그는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 다 자발적인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것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자들이 금과 은을 받을지 모르지만, 구매자들은 자기들이 지급하는 돈보다 자기들이 더 크게 평가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얻는다. 거래는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거래가 더 많이 있을수록, 가치가 더 많이 창출되고 부가 모든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더 많이 확산된다. 공개경쟁은 혁신을 촉진하고 돈에 대한 가치를 증진한다. 그리고 자본과 시장들에 의해 가능하게 된 전문화는 막대한 생산성 이득에 이르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해, 특히 그 권력이 연고자들(cronies)을 위해 그리고 기성 생산자 이익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될 때, 억압될 수 있다고, 스미스는 경고했다.

그러므로 자기의 통제, 보조금, 세금, 전쟁 그리고 거래와 가치에 관한 원시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중상주의는 확실히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자연적 자유의 체제(system of natural liberty)’가 아니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주장들이 지배했다. 1860년대까지는 중상주의 통제들은 더 낮은 세금과 탈규제로 대체되고 있었다. 그 결과는 놀랄 만한 자유 무역 시대였고, 영국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이었다.

## 산업 혁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생각할 때 그들은 아마도 18세기 후기와 19세기 초기 영국 산업 혁명의 제분소 및 공장 성시(城市)들을 생각하고,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1812-70년)와 참으로 마르크스 같은 저자들이 그것들에 관해 그린 무서운 그림을 생각할 것이다.

확실히, 이 시대의 경제는 중상주의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보다 자본주의 개념에 더 가까웠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세금이 낮은 경제였는데, 거기서는 다수의 발명들이 농업과 제조업을 변형시켰고, 거기서는 새로운 수력과 증기력 기술이 방직 공장과 방직 공장을 가동시켜서 이것들은 영국으로부터의 양모와 아메리카로부터의 원면을 세계에 대한 수출용의 저가 고품질 의복으로 바꾸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주의자-디킨스류(類)의 기술(記述)은 이 놀랄 만한 발전들의 진정한 본질과 효과들을 크게 모호하게 하였다. 그러한 비판자들은 지주들이 농지를 울타리로 구획하는 것을 허가했던 18세기 후기 인클로저 조례(Enclosure Act · 공유지의 사유지화를 허가한 법령)에서 산업 혁명의 기원을 찾아낸다. 소작농들이 결과적으로 시골 지역들에서 몰아내져 무서운 성시(城市)들로 몰아넣어졌고, 거기에서 공장주들은 그들을 값싼 노동으로서 착취하였다고, 그 주장이 나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희화다. 인클로저들은 빠르지도 쉽지도 않았다. 각각은 의회 승인을 필요로 했고, 이의(異議)들도 고려되어야 했다. 시골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에서 훨씬 더 강력한 요인은 공

장 성시들에서 임금들이 더 높고, 그것들이 토지에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산업 혁명, 수력과 증기력, 전문화 그리고 국제 무역은 사람들의 생산성을,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그들의 소득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이것은 역지로 도시 빈곤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1820년까지는, 영국에서—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모든 소득 집단의 평균 소득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공장 노동도 역시 사람들이 토지에서, 그것의 가변적인 수확물들을 가진, 계절노동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소득 흐름을 제공하였다. 비록 공장 근로자들의 시간들이 우리 기준으로는 길었을지 몰라도, 그것들은 농작물들을 기르는 데 필요한 시간들보다 더 길지 않았던 반면, 노동 그 자체는 훨씬 덜 고되었고 기후의 극단들로부터 보호되었다. 성시들에서는, 또한 상점들과 문화 시설들도 있었고, 사교 생활, 문화 활동 그리고 교육의 훨씬 더 큰 기회들도 있었다. 주택은, 특히 더 많은 아이들이 살아남고 가족들이 커짐에 따라, 비좁았다. 그러나 도시 주택들은 시골 근로자들의 오두막집들보다 더 습기가 없었고, 더 따뜻했고, 더 깨끗했고, 더 위생적이었고, 더 환기가 잘 되었다. 잘사는 대도시 지식인들은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기꺼이 떠났던 시골 빈곤을 하여간 이해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성시들이 창출한 바로 그 부 자체는 근로 조건과 생활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개선들을 수행했는데, 이것들은 아동 노동, 시간, 임금 그리고 주택 기준에 관한 새로운 법률들—이 모든 것들은 자급 농업의 시대에는 불가능했을 것이다—에 의해 통합되었다. 그리고 도시 근로자

들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었던 의복과 많은 기타 제품들의 엄청난 가격 하락과 품질 상승을 고려하면, 그런 임금들은 훨씬 더 나아가고 있었다.

## 국가 관리 경제

그러나 대략 1880년대부터, 도시 생산이 확대되도록 도왔던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 환경은 증가하는 지적 압박 하에 놓이게 되었다. 물리 과학들에서의 성공들은 사회 및 경제생활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증가를 야기했다. 도시 공동체들은 근로자들이 합쳐서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보수와 근로 조건들에 대해 더욱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을 허용했다. 온 유럽에서의 정치적 긴장들은 거의 중상주의적인 보호주의 정책들의 재출현을 야기했다. 무역과 상업은 점차 더 규제되게 되었고, 20세기 초기까지는 정부들더러 철도와 같은 필수 서비스들의 운영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전 산업들의 운영을 넘겨받기조차 하라는 요구들이 있었다.

1930년대에, 대공황의 여파로, 더 많은 국가들이 이런 국유화를 더 많이 선택했다. 새로운 물결의 경제학자들은 회복의 촉진을 기대하여 정부들에게 그들의 지출을 증가시킬 것과, 그래서 조세, 신용 그리고 화폐 정책들을 통해 그들의 경제들을 ‘미세 조정(fine tune)’하도록 촉구했다. 1960년대까지는, 지구상에서 거의 모든 피상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국가들은—거의 전혀 자본주의 원칙들에 충실하지 않은—나란히 존재하는 사기업과 공기업, 회사·고용·시장의 규제, 당국에 의한 ‘유도 계획(indicative planning)’, 보호주의 무역 장벽, 그리고

경제의 정부 관리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혼합 경제가 되었었다.

그러나 이 혼합은 자기 자신의 문제들을 초래했다. 정부 정책들의 더 넓은 효과들은 부적절하게 이해되었다. 경제를 신장시키게 되어 있었던 정부 지출은 사실상 그것을 실제로 파열시킨 견잡을 수 없는 가격 상승들의 병치레들을 증대시켰다. 국가 운영 산업들은, 항상 납세자들의 돈에 기댈 수 있어서, 효율과 고객 서비스의 면에서 악명 높게 나빠졌다. 계획자들은 자기들이 복잡한 경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전혀 모으고 처리할 수 없었다. 합리적이게 되어 있었던 경제 정책은 정치화되었고 그것을 두고 기득 이익 집단들이 다투게 되었다. 노동 분쟁들이 증가했다. 연고주의가 생겨서 모든 생산을 왜곡했다.

## 조합주의의 재앙

이 연고주의는 아마도 오늘날 지배적인 경제 형태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고 부르지만, 연고 사회주의(crony socialism)라고 불리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은 기업, 혁신, 생산성, 자유 시장들 그리고 경쟁의 의미에서 자본주의에서 먼 세계인데, 이 모든 것들은 소비자들의 요구들에 의해 움직인다. 오히려, 그것은 독점적 야망을 가진 기업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데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소비자들 편에 있는 척할지(그리고 그러하다고 스스로 믿기조차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과 정부의 동맹에 관한 것이다.

지난 세기에 걸쳐 정부들의 성장과 경제생활의 모든 부분의 그것

들의 침투를 고려하면, 많은 상업적 특권들을 정부들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다. 정부들은 보조금과 조세 감면을 나누어 주거나, 관세와 무역 장벽을 높이든지 낮추거나, 땅이나 돈이나 독점을 교부하거나, 새로운 기업들이 거래 허가를 얻도록 요구하거나, 기성 기업들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규제와 급여 체계를 창설할 수 있다. 정부들은 바로 그 기업들 사이의 담합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가격과 생산량이 고정될 수 있는 계획 포럼들(planning forums), 일종의 국가 후원 카르텔에서 그들이 모이도록 요구하기조차 할 수 있다. 그리고 위기를 예방한다거나 일자리를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들은 서투르게 관리되거나, 외국 경쟁자들의 가격이나 품질에 필적할 수 없거나 자기 제품이 전혀 더 이상 소비자들로부터 수요가 없는 기업들을 자금 지원으로 구제하도록 쉽게 설득된다.

그렇게 해서 은행, 항공사, 건축업자, 제조업자, 에너지 공급업자, 전화 회사, 언론사, 제약 회사, 자동차 제조업자, 슈퍼마켓, 지주, 풍력 터빈 기술자, 버스와 열차 회사, 수입업자 그리고 기타 다수는—비록 명목상으로는 사기업이지만—특권, 보조금, 조세 감면, 허가 그리고 경쟁을 질식시키는 규제를 얻기 위해 정부들에 의존하고 있다.

설사 이 모든 것의 원래의 의도들—경제 안정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고, 생활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등등—이 고상했다 할지라도, 이 정부 활수(滑手·후함)의 효과들은 해롭다. 그것은 기업들을 정치로 끌어들인다. 그것은 경제학자들이 *지대 추구* (rent seeking)라고 부르는 것—국고에서나 경쟁을 줄이는 규제들에서 생기는 쉽게 번 이윤(easy profits)을 보장해 주는 특권들을 얻기 위해 로비하는 것—을 조장한다. 정부가 더 커질수록, 그러한 로비 활

동으로부터의—그리고 참으로 부패와 연고주의로부터의—잠재적 편익들은 더 커진다. 기존 생산자 이익들이 더 많이 충족될수록, 현직자들은 더 크게 자라고, 정부는 미래 규제를 형성하는 데서 그들에 더 많이 의존하며, 잠재적 경쟁자들과 새 기술들이 더 많이 몰아내진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이익들은 무시되고, 정치적 토론은, 이익들이 더 집중되어 있고 개개 소비자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로비할 더 많은 돈과 더 전문적인 솜씨를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의 로비 활동에 의해 독점화되게 된다.

그렇지만 이 연고주의는 세계 도처에서 흔하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그러한데, 거기에서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는 용어가 주도되었고, 거기에서는 정부들이 흔히 각 부문에서의 ‘선두(leader)’ 회사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규제와 관세 장벽을 가지고 보호한다. 그들에게는,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소수의 크고 강력한 회사들을 가지는 것의 편익들은 눈에 잘 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비용, 즉 이 큰 회사들에 의해 고용되는 자본, 인력 그리고 기타 자원들이 다른 곳에서 더 생산적으로 사용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잇는다. 참으로, 정부들은 셀 수 없이 많은 개인들이 발견할지 모르는 모든 기회를 도저히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들이 그럴[다른 곳에서 더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그러한 상업적 특권은 오직 정부들이 그것에 대해 강제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정부들이 오직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데만 강압을 사용하는 자유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연고주의가 아주 흔하다는 사실은 세계 도처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오직 명목상으로만 자유로운지를 나타낸다.

## 미래를 위해 자본주의 창설하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한정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많은 실제적 흠들을 자본주의의 이상에 부담시키는 데 교묘한 속임수나 이본(異本) 합성을 사용하여 서술하려고 할지라도, 이 경제 체제들의 어떤 것도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도 자본주의로서 서술하기는 어렵다.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에 대한 도전은 핵심 개념을 이본 합성들과 혼동들로부터 분리하고, 자본주의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편익들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자본주의 비전에 더 가까운 경제적 체도를 실제로 창설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국가 소유 기업들을 해체하는 것과, 경쟁을 방해하고 연고주의(cronyism)와 조합주의(corporatism)에 연료를 제공하는 세금, 보조금, 관세 그리고 규제를 삭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국가를 국민들의 권리들과 자유들을, 침해하기보다, 보호하기에 국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국가와 경제생활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무제한의 민주주의에서 달성하기가 쉬운 의제가 아닌데, 여기에서는 더욱더 많은 결정들이 정치 과정을 통해 내려지고, 모든 종류의 경제 정책들을 소수파에게 부과할 권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수파에게 준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포퓰리즘(populism)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의 건국자들은 자기들의 정부에 그러한 엄격한 한계를 부과했고 그것의 권력들을 상이한 제도들 사이에 분리하였다. 그렇지만 심지어 거기서도, 권력은 중앙 집권화되었고 집중되었다.

이것들은 연고주의를 위한 완전한 조건들이고, 올바르게 이해된 바

로서의 자본주의를 위한 아주 어려운 조건들이다. 자기의 모든 흠들을 가지고 있는 연고주의를 자기의 모든 편익들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치 과정의 제한들과 정치 과정에 대한 한계들의 체계적인 재고(再考)가 필요한 것 같다.

## 9 자본주의에 관한 위대한 사상가들

### 살라망카학과(‘스콜라 철학자들’)

#### *재산, 수요와 공급, 이자*

15세기와 17세기 사이, 스페인 성직자들은 경제학의 이해에서 많은 돌파구들을 열었고, 자본주의를 그것을 아주 자주 비판하는 것 같았던 기독교 성서들과 조화되게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소위 *스콜라 철학자들*(Scholastics)의 첫 번째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1483-1546년)에게 하나님과 교회가 자기들의 거래를 어떻게 볼지 걱정스러웠던 상인들이 상담했다. 비토리아는 그 문제를 숙고하였고, 사람들, 재화들 그리고 생각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신의 창조물인, 자연(Nature)의 일부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상인 거래는 불의한 것이 아니었고, 사실상 일반 이익(*general good*)에 이바지하였다.

성서들은 또한—대부금에 대한 이자도 비난하여—고리 대금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스콜라 철학자들의 시대에는, 르네상스가 많은 기업 활동 기회들을 가져왔고, 대부 금융(*loan finance*)이 영업과 거래의 수행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었다. 다행히, 스콜라 철학자들은 대부금 이자를 정당화하는 많은 방법들을 찾아내었다. 차용인

들이 이익을 보는데,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했다. 이자는 만약 대부금이 안 좋아지면 위험에 대한 보상—프리미엄—이다.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돈에 대해 많은 다른 잠재적인 용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 그 자체는 재화이고, 당신은 그것을 빌리려면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어떤 다른 재화를 임대할 때와 꼭 같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또한 사적 소유도 옹호했다. 그것은 경제 활동과 그러므로 번영을 자극하는 편익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보다 자기들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더 잘 돌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신의 창조물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개인들은—공공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의무가 있는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자기들의 재산을 소유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결론지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공급과 수요의 중요성을 확인하기조차 하였다. 그들은 귀금속들이 희귀한 나라들에서 그것들이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린다고 보았다. 재화의 ‘정당한 가격(just price)’은 그저 그것의 생산과 운송의 비용—똑같은 꾸러미의 리넨이 그것이 싸게 해로로 운반되기보다는 비싸게 육로로 운반된다면 어떻게 더 가치가 나갈 수 있을까?—만은 아니었다. 가격은—시장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된다면—공급과 수요의 상호 작용에 달려 있었다.

## 애덤 스미스(1723-90년)

### *전문화, 상업 그리고 자유 무역의 편익들*

이전에는 스코틀랜드 철학자였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자기의 책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1776)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견해들과 많은 다른 저자들의 견해들을 엮어서 새롭고, 체계적이며, 곧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근대적인 경제학 접근법을 만들었다. 그 책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중상주의(mercantilism) 체제를 공격했는데, 그 체제는 국가의 부를 그것의 금 및 은 비축량으로 측정했고, 수출 매상고를 극대화하는 데 보조금을, 그리고 수입 구입품을 막는 데 관세를, 사용했다. 스미스는 양측이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지적했다. 참으로, 만약 무역이 자기들의 상태를 더 낮게 하지 않으면 어느 쪽도 무역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판매자들이 현금을 얻는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매자들은 자기들이 지급하는 가격보다 자기들이 더 크게 평가하는 재화를 얻는다.

스미스는 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의 현금 보유고가 아니라, 그것의 생산, 무역 그리고 상업의 크기—우리가 지금 국민 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혹은 국내 총생산(GDP)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우리는 전문화로 그 생산고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관찰했는데, 전문화로 우리는 숙련되고 더 생산적이게—만약 우리가 도구와 장비 같은 전문 자본재에 투자한다면 더욱더 그렇게—될 수 있다.

우리의 전문 제품들을,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다른 것들과 교환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이 전문화와 자본 투자에 의해 야기되는 생산성 증대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자유 무역과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시장들은 노력과 자원들을 가장 생산적인 사용자들에게로 돌리고 완성된 제품들을 그것들에 대한 수요가 가장 강렬한 사람들에게로 돌린다고, 스미스는 주장했다. 그것은 고도로 협동적인 체제이지만, 그것은 오직 행동의 자유, 자유 무역 그리고 공개경쟁이 있는 곳에서만 작동한다. 스미스는 연고 자본주의에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생산자들이 독점이나 특권을 얻으려고 정치인들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생활이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경제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결론지었다.

##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년)

### *비교 우위와 생산적 효율*

성공적인 런던 주식 중개인이자 투기꾼(항간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는 영국이 워털루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백만 파운드 도박을 했다)으로서, 리카도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은 후에 경제학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지대, 임금, 이윤, 과세 그리고 가치에 관한 이론에서 주요 진전을 이루었다.

무역 정책에 관해, 그는 밀의 수입을 제한하는 곡물법들(Corn Laws) 같은 보호주의 조치들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상대 비용 이론(theory of comparative costs)’(지금  
은 *비교 우위 이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으로 불린다)을  
전개했다. 국가들은—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의 면  
에서—자기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을  
것에 전문화함으로써 더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설  
사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모든 것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 하  
더라도, 그 국가는 자기가 비교 우위—그리고 반드시 절대 우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를 가지고 있는 재화들에 전문화하는 것이 여전히  
더 나은 것이다.

현대 예를 하나 들면, 유명한 영화배우가 우연히 영화 촬영소 요리  
사보다 더 나은 쿡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요리사에 대한 그 *절대*  
(absolute) 우위에도 불구하고, 촬영소는 자기의 스타를 주방으로 쫓  
아내기보다 그를 계속 촬영장에 있게 하여서 그의 재능과 명성의 비  
교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 여전히 더 낫다. 이 원리는 여전히 자유 무  
역 찬성론의 주요 기초들 중 하나이다.

## 루트비히 폰 미제스(1881-1973년)

*자본의 본질; 사회주의 비판; 자유방임의 편익*

미제스는 ‘오스트리아학파(Austrain School)’ 경제학자들에서 지도  
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이들은 경제 현상들의 복잡성을 강조했고 수  
백만의 개인의 가치들과 행동들이 어떻게 전반적인 결과에 결정적인  
지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자본에 관해 중요한 것은 그것의 총 가치

가 아니라 그것의 구조—정확하게 무슨 자본재들에 사람들이 투자하는지 그리고 그런 자본재들이 어떻게 함께 생산적으로 작동하는지—였다. 이 구조는 연약했다. 예를 들면, 부적절한 이자율 정책은 시장들을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권유하여 실패와 손실에 이르는 잘못된 것들에 투자—과오 투자—하게 하였다.

공산주의 하에서와 같이, 시장들이 완전히 제거된 곳에서는, 합리적인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가격들이 없으면, 많은 가능한 생산 과정들 중 어느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일지를 어느 누구도 결코 계산할 수 없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자원들은 잘못된 과정들에 투자될 것이고, 낭비와 비효율에 이를 것이며, 실수들은 그것들을 제거할 시장 압력이 없을 것이므로 시간에 걸쳐 축적될 것이다.

미제스는 강건한 자유방임 찬성론을 폈고, 정부들이 시장 체제를 통제와 규제로 방해하기 시작하자마자 연못의 잔물결들처럼 시장에서 시장으로 퍼져나가서 시장을 차례차례 왜곡시키는 (잉여와 부족 같은) 혼란들의 물결들을 정부들이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피해를 제한하려고 하는 데서, 정부들은 그러면 더 개입하도록 끌리고, 이것은 사정을 더욱더 악화시킨다.

## **F. A. 하이에크(1899-1992년)**

### *자생적 질서, 계획의 비판, 시장 조정*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학생, 빈 출신 하이에크는 호황-불황 경기 순환들에 대한 연구에 그와 공동으로 작업했고, 이자율을 너무 낮게 설정

하여 과도한 차입과 지출을 조장하는 중앙 은행에 의해 이것들이 야기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낮은 이자율은 또한 저축을 억제하기도 하는데, 빌려주는 사람들의 자금이 고갈될 때, 투자자들은 신용 경색에 직면하고, 그들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투자는 포기되어야 하며, 자본과 일자리는 상실된다.

하이에크의 주요 통찰들 중 하나는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의 개념이었다. 인간 사회와 동물 사회는 명백한 규칙적인 패턴을 보인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벌들이 사는 방법이라든지 인간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러한 질서들은 자연적으로 생겼고, 그것들이 유용했기 때문에, 지속되었다. 종종 우리는 그것들을 떠받치는 규칙들(문법 규칙들과 같은 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적인 질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고—예를 들어, 우리가 임금 및 가격 통제들을 부과함으로써 가격 메커니즘을 손을 흔들어 쫓아버릴 수 있다거나 중앙 경제 계획을 통해 자유 시장을 능가할 수 있다고—상상하는 것은 자만이다.

하이에크의 견해로는, 경제 계획자는 그러한 과업에 필요할 정보에 접근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정보는 분산되어 있고, 지방적이고, 부분적이고,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장들은 이 모든 정보를, 시시각각, 분산된 지방 수준들에서 처리한다. 자원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어떤 계획자도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그것들의 가장 소중한 용도들로 돌리는 간단한 신호들을 가격들이 제공한다. 그러므로 시장 질서들은 계획 체제들보다 훨씬 더 효율

적이고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 밀턴 프리드먼(1912-2006년)

### *건전한 화폐의 중요성; 규제 비용*

프리드먼은 자유주의 사상의 특별히 유능하고 설득력 있는 의사 전달자였다. 자기의 책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1962) 그리고 자기의 TV 시리즈와 책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1980)—둘 다 자기 아내 로즈(Rose)와 공저했다—를 통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유 시장, 개방 무역, 자유 그리고 자본주의에 관해 알게 되었다.

1946년에, 프리드먼은 임대료 통제들의 날카로운 거부에 대해 공동으로 일했다. 그러한 정책들은 집주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덜 기꺼이 간수해서 내놓게 하여, 이용할 수 있는 거처의 품질과 공급 양쪽 다를 줄인다고, 그는 관찰했다. 그는 또한 (의사,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와 같은) 지적 직업들의 규제와 면허제도 연구하였고, 그것이 대중이 아니라 개업자들을 이롭게 한다고 결론지었다.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면허제는 더 빈약한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더 많이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

프리드먼은 화폐 정책과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20세기 후기의 주요 문제—에 관한 그의 연구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정부들이 자기들의 조세와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류 견해를 비판했고, 대신 그들이 유통 중인 화폐의

양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화폐 정책은 매우 무딘 도구이고, 그래서 정부들은 그저 건전한 틀을 수립하기만 해야 하고 자기들의 끊임없는 경제 간섭을 포기해야 한다.

## 제임스 M. 뷰캐넌(1919-2013년)과 고든 킬릭(1922-2014년)

### *정치적 의사 결정의 비판*

뷰캐넌과 킬릭은 공공선택학과 경제학을 전개했는데, 이것은 시장 실패가 정부 개입을 정당화한다는 생각에 도전했다. 더욱 흔히, 정부 실패는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데, 왜냐하면 정책 결정 과정이 자기 이익과 착취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설명했다.

부패는 선거들로 시작되는데, 이것들은 ‘공익(public interest)’의 시험이 아니라 경쟁하는 이익들의 다툼이라고 뷰캐넌과 킬릭은 지적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하는 어떤 상이한 제품들이건 가질 수 있다. 선거들에서는, 다수파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선택을 한다—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소수파를 착취하는 것을 돕는 데 국가의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본주의 하에서는 생산자들이 할 수 없다.

선거들도 역시, 그 이익들이 더 분산되어 있고 온건한 일반 대중에 의해서보다는, 결과에 강렬한 특수 이익을 가지고 있는 특수 이익 집단들에 의해 지배된다. 그리고 가장 공공 정신이 투철한 정치인조차도 선출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익 집단들에 양보할 필요가 있다. 정책

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편리한 것에 집중되게 된다.

더군다나, 의회에서 자기들의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동료들과 기타 입법자들의 지지를 얻도록 추가 조정을 해야 한다. ‘당신이 나의 법안에 찬성 투표해 주시면 내가 당신의 것에 찬성 투표하겠습니다,’라는 거래를 그들과 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법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 불합리한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을 집행하는 관리들은 추구할 자기들 자신의 특별한 이익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규칙들을 대단히 복잡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개인적인 관료 제국들을 확대하려고 시도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그것들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직원을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가 완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대안에 관해 감상적이어서도 안 된다고, 뷰캐넌과 톨릭은 결론지었다.

## 게리 베커(1930-2014년)

### *인적 자본; 사회 문제들에 대한 경제학적 해결책들*

밀턴 프리드먼의 학생, 미국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범죄자들의 동기들, 소수파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이민을 포함하여, 많은 상이한 종류들의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경제학적 개념들을 적용함으로써 신기원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비록 그 자신이 그 구절을 주조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에 관한 자기의 연구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인적 자본은 개인들을 더 생산적이게 하는 자질, 지식 그리고 기능이다. 그것은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들을 포함하지만, 시간 엄수와 근면 같은 유용한 가치들과, 심지어 좋은 건강도, 포함한다. 베커는 두 가지 종류의 인적 자본, 즉 **특정한(specific)** 인적 자본과 **일반적인(general)** 인적 자본을 식별했다. 특정한 인적 자본은 특정 기업에 적합한 지식으로, 그 기업의 전유(專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 것들이다. 기업들은 이 지식을 얻기 위해 고용인들에게 지급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고용인이 떠날지라도, 그 정보가 경쟁 기업들에게 쓸모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인적 자본은 어느 곳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지식으로, 자판 두드리는 기능과 같은 것들이다. 기업들은 그러한 이전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꺼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자기들 자신의 비용으로 획득해야 한다.

베커의 접근법은 다른 흥미로운 통찰들도 제공한다. 예를 들면, 그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전 세대들보다 교육에 더 오래 지출하는 하나의 이유가 그들이 더 오래 살고 있어서 자기들이 이전 가능한 기능들을 가짐으로써 벌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을 연장하고 증가시킨다는 점이라고 암시한다. 기술 진보도 역시 고급의 지식과 최첨단의 기능들을 획득하는 것을 더욱 유리하게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훨씬 더 생산적이고 높이 평가되게 하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 개념은 심지어 왜 더 많은 여성들이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교육을 받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사회학적 변화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정 자동화가 여성들을 자기들 자신의 경력을 추

구하도록 해방시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이지만 지극히 중요한 하나의 결론이 있다. 기술이 더욱더 빨리 변함에 따라, 사람들이 새로운 기능들을 개발하게 하고 자기들의 인적 자원을 새롭게 유지하게 할 수 있는 평생 학습의 필요가 이제 더 많이 있다.

## 이즈리얼 커즈너(1930- )

### *기업가 정신의 역할, 동태적 효과들의 중요성*

런던에서 태어난 커즈너는 뉴욕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 밑에서 공부했다. 미제스와 같이, 그는 표준적인 ‘정태 균형(static equilibrium)’ 모형들이 동태적인(dynamic) 경제학 본질을 모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활동은 결코 어떤 완전 평형(perfect balance)에 정착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계획을 수정하고 있고 자기들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는, 행동에 대응하여 조정하고 있다. 이 동태적인 과정은 그들의 행동들을 계속해서—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끊임없이 조정되게 한다.

커즈너는 기업가 정신이 이 조정을 가동시키고,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업가 정신은 개인들이(반드시 전문 직업적 기업가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역시) 시장에서 공백들과 부조화들을 탐지하고 그 다음 그것들을 채우고 수정하도록 행동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새로운 재료로 일정 제품들이 더 가볍거나 더 내구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는 것을 탐지할지 모른다. 또 한 사람은 새로운 사무실 단지가 인근의 커피숍의 수요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탐지할지 모른다. 또 한 사람은 인기 있는 지방 빵집이 전국 체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지 모른다. 자신을 위하여 자기들이 기업가적 이윤을 벌 것 같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이런 직감들에 따라 행동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생산을 대중의 다양한 필요들 및 욕망들과 더 잘 정렬시킴으로써 인간 경제 행동들의 적응을 돕는다.

이것은 그 다음에는 상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시장 상황에 관한 국지적 지식에 경제 적응과 조정이 심하게 의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주류 경제학의 ‘완전 정보(perfect information)’ 개념에서는 그저 망각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이 기업가적 정신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정책들, 제도들 그리고 공개 시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기도 한다.

## 데어드러 맥클로스키(1942- )

### *자유주의 가치들과 경제 성장*

맥클로스키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53세의 나이에 여자로 전환했다. (도널드 맥클로스키(Donald McCloskey)로서) 가격 이론과 기타 주제들에 관한 연구로 이미 알려져 있는 그녀의 주요 영향은 차후에 영국 경제사에 관한 그녀의 연구의 결과로서 생겼다. 그녀는 지난 2세기 동안 경험한 거대한 경제 성장이 자본이나 제도들에 의해서보다는

자유주의 사상—구체적으로, ‘부르주아 가치들(bourgeois values)’—의 확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맥클로스키는 최근의 경제 성장의 단순한 규모를 강조한다. 1800년에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단지 2-3달러에 해당하는 것을 벌었다. 오늘날에는, 평균 소득은 수십 배 더 크다. 세계 인구가 1800년 이래 7배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엄청난 부 증가이다. 또한 그것은 그저 물질적 풍요화만이 아니다. 증가하는 부, 수명 그리고 읽고 쓰기 능력과 함께, 그것은 또한 지적이고 문화적인 풍요화이기도 하다.

이 **대(大) 풍요화(Great Enrichment)**—농업의 시작 이래 번영에서 가장 큰 도약이지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약—은 1860년경 시작되었다. 그것은 14세기 흑사병 이래의 영국의 착실한 경제 성장에 의해서도, 심지어 18세기 후기에 시작된 산업 혁명에 의해서조차도, 또한 영국의 제도들과 법의 지배에 의해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오직 사상만이 사정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빨리 바꿀 수 있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대풍요화는 보통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유, 존엄 그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하였던 ‘부르주아 자유주의(bourgeois liberalism)’의 확산에서 생겼다. 수세기 동안, 상업(commerce)은 부패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존 로크와 애덤 스미스 같은 필자들은 자유의 미덕들, 거래, 부와 자본의 축적, 그리고 그것[상업]이 보통 시민들에게 준 존엄과 자존을 옹호했다. 돌연, 자유로운 국민의 창조적인 정신을 억제할 아무것도 없었다.

## 10 비판자들과 비판들

아이로니컬하게도, 미국 영화 제작자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1954- ), 한국인 경제학자 장하준(1962- ), 캐나다 활동가 나 오미 클라인(Naomi Klein)(1970- ) 그리고 프랑스 필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1971- )는 자기들의 자본주의 비판을 통하여 부유하게 되었다. 만약 그들의 견해에 수요가 있다면, 자본주의는—전형적으로 비판을 박멸하는 다른 체제들과 달리—자기 자신의 비판자들조차도 보상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가 자기들을 저평가하고 있고, 더욱 공정한 사회에서는, 자기들이 더 큰 지위와 권위를 가질 것이라고 느끼는 대학교수들, 교사들, 필자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는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존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원천이 무엇이건,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이 역점을 두어 다루어야 할 많은 타당한 자본주의 비판들이 있는데, 도덕적 비판들, 자본주의 경제들의 구조에 관한 걱정, 기업 권력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지정학적 우려가 그러한 것들이다.

## 도덕적 비판들

*평등 대 변영.* 자본주의 사회들은 놀랄 정도로 평등하지만, 사람들이 돈을 재화 및 서비스와 교환함에 따라, (비록 자기들이 구매하는 것을 누림으로써 균형이 잡힐지라도) 불가피하게 그들의 재정적 보유고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재정적 평등을 보존할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재분배일 것이다.

재정적 불평등에 관한 많은 통계들은 오도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세금이 빠지고 복지 급부금이 지급되기 전의 소득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세금과 급부금이 고려될 때, 평등성은 전 세계에서 실제로 매우 비슷해서, 소득자들의 하위 10퍼센트가 중위 소득의 약 40퍼센트를 얻는다. 통계는 또한 연령과 이동성의 효과를 모호하게 하기도 한다. 젊은이들은 덜 부유한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자기들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기능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이민자들과 기타 사람들은 보수가 낮은 일자리를 잡지만 그것들을 보수가 더 나은 일자리에 대한 디딤돌로 간주한다. 그러한 진행은 어떤 체제에서건 자연스럽다.

어떤 비판자들은, 완전한 평등의 불가능성을 알아채고서, 부가 비생산적인 사람들에게 전혀 흘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이 대충 평등한 지반에서 인생을 시작해야 하도록, 매우 높은 상속세를 옹호한다. 그러나 많은 도덕적 및 기타 이의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부양할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 본성을 무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아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더 많이 이

전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사망 시에 자기들의 돈이 과세되어 없어지는 것을 보기보다 그것을 낭비할 것인데, 이것은 더 낮은 투자와 더 낮은 미래 번영을 초래할 것이다. 가족 운영 기업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건, 우리가 보았듯이, 상속된 부는 영구적이지 않다.

거의 모든 사람이 원칙상으로는 평등한 대우와 기회의 평등을 지지하지만,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번영을 더 큰 평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놀랄 정도로 꺼려한다. 돈이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되지만, 모든 증거는 그것이 그렇게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역점을 두어 다룰 필요가 있는 문제는 소득의 평등이 아니라 충분한 소득이다. 사람들이 어지간히 먹고 살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자본주의와 탐욕.* 자본주의가 탐욕에 근거해 있다는 비판은 탐욕(greed)과 자기 이익(self-interest)을 혼동하는 데서 생긴다. 만약 제공자들이 정말로 탐욕스럽다면, 그들의 고객들은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탐욕(greed)’의 비난을 왜 오직 기업에게만 퍼붓는가? 기업들이 이윤을 갈망할지 모르지만, 고객들도 똑같이 절약을 갈망하고, 한편 근로자들은 더 높은 보수를 갈망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탐욕스러운(greedy)’ 고객들과 근로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거의 듣지 못한다.

가끔씩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비판자들은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 안에 탐욕을 부추겨서, 매우 중대한 공공 서비스들에 대해 필요한 세금에 저항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금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들은 (보건 의료와 교육 같이) 사적으로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거나(문화와 복지 프로그램들 같이) 시민 사회를 통해 지원될 수 있다. 그리고 과세가 필요할지 모르

지만, 그것은 필요악이다. 결국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강압으로 빼앗은 것이다. 그것은 약간의 납세자들이 철저하게 반대하는(형무소, 군대 혹은 낙태와 같은) 것들에 지출된다. 그것은 독점 국가 제공을 조장하는데, 이것은 덜 효율적이고 선택을 덜 제공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보조금과 특권을 얻으려고 경쟁함에 따라 로비 활동과 연고주의를 부추긴다. 그리고 그것은 비뚤어진 유인을 창출한다—예를 들어, 소득세는 일을 보상이 더 적게 하고, 상속세는 저축과 투자를 억제한다.

*물질주의와 소비자 중심주의.* 또 하나의 도덕적 비판은 자본주의가 물질주의(materialism)와 ‘과도(excess)’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 주장은 이상한 계보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초기 비판자들은 자본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합리적 계획이 생활 수준을 더 빨리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들은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더 최근에는 비판은 자본주의가 너무 잘 작동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과도하게(excess)’ 충족시키고 사치품들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을 중요한 사회적 목적들에서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이 ‘과도(excess)’로 간주되는냐는 견해의 문제이다—이것은 공공 정책에 대해 빈약한 근거인데, 특히 그러한 소비를 억누르는 데 강압을 사용하게 될 정책에 대해 그렇다.

이 주장에는 두 가지 다른 약점이 있다. 첫째,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지 못하게 할 도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설사 우리 스스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그리고 확실히 그들을 강제하여 우리의 가치들에 따라 행동하게 할 도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것들을 아무리 유덕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다. 그것은 선택과 자기 결정에 대한 그들의 권리들을 침해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주요 이유는 그것이 경제체들을 생산하는 데 아주 능하다는 바로 그 점이다. 우리는 평등이나 연대 같은 *사회적(social)* 결과들을 산출하려고 그것을 채택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 일에는 잘못된 도구이고, 우리는 그것의 탓을 그것에 거의 돌릴 수 없다. 그것은 사실상 평화와 일반 번영 같은 몇몇 만족스러운 사회적 결과들을 정말 산출한다—그러나 그것은 그저 보너스일 뿐이다.

*비용 절감과 품질.* 많은 비판자들은 경쟁이 생산자들에게 철두철미 비용을 절감하도록 강제하고, 소비자들에게 값싸지만 조잡한 재화를 남겨 둔다고 생각한다. 물건들은 오래 쓰도록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이것은 불합리하며 이것은 가짜의 경제라고—그들은 불평한다.

사실상, 생산자들에 대한 경쟁적 압력은 고객의 수요를, 그것이 무엇이건, 충족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들에는 품질을, 다른 경우들에는 염가를 수요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만약 유행이 빠르게 변하면, 이내 유행에서 벗어나는 값비싼 의복을 생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새로운 기술로 이내 구식이 될지 모르는 개인 전자 기기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잔디깎기나 그랜드 피아노처럼) 유행이나 기술 변화가 썩 중요하지 않은 내구재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값싼 제품들보다 더 잘 만들어진 제품들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경우들에서, 그것은 소비자에게 달려 있다. 나이가 많고 부유한 구매자들은 고품질이지만 고비용인 재화들을 선호할지 모르는 반면, 젊고 가난한 고객들은 품질이 떨어지지만 값이 알맞은 것들을 선호할지 모른다. 누가 그들의 그 선택을 거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서투른 선택을 한다.* 어떤 비판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저축 계획(savings plan)이나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재화와 같이, 서투른 선택을 한다고 반대한다. 그들은 새로운 제품들이, 특히 금융 상품들이, 엄격하게 규제되어야—혹은 그것들의 완전한 효과들이 알려질 때까지 심지어 금지되기조차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새 제품들을 살 때 실수를 할지 모른다는 근거에서 그것들을 금지하는 것은 혁신과 진보를 절멸시키는 확실한 길이다. 이 진보로부터 편익을 얻을 미래 세대들은 큰 손해를 본다. 복잡한 저축 상품들에 대해 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s)과 같은 몇몇 간단하고 일반적인 보호책들의 옹호론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규제는 의미가 없다. 아무도 면허증을 점검하지 않는다. 그들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들이 누구를 추천하겠는지 묻는다.

우리 어느 누구도(심지어 규제자조차도)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제품들을 우리가 그것들에 관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들 자신의 선택을 그것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 자신의 필요를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관리보다 훨씬 더 잘 알기도 한다. 규제자들은 개인들이 어떤 특별한 동기로 자기들이 사는 것을 사게 되는지 알 수

없다—그렇다면 규제자들은 그 개인들을 막을 무슨 권리나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를 때 우리가 그들을 자금 지원으로 구제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들을 부추겨 부주의하게 할 뿐이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선택 능력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하찮은 물건(ciphers)으로 전환시킨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도덕적이다.

## 구조적 비판들

*생산의 무정부 상태.* 많은 비판자들은 자본주의 생산을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며, 무정부 상태라고 간주한다. 예를 들면, 상이한 기업들이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그것들을 광고하는 데 돈을 낭비해야 한다. 단일의 대규모 생산자가 더 효율적일 것이고, 광고는 불필요할 것이다. 또한 만약 생산이 자본주의 생산의 무작위적 성질에 방지되기보다 적절하게 계획된다면, 더 합리적이고 덜 낭비적으로, 자원들이 사용되고 생산이 구조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들은 경쟁이 자본주의를 고도로 *동태적* (dynamic)이게 한다는 점을 망각한다. 기업들은 모두 똑같은 것들을 생산하지 *않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그리고 낭비적인 비용을 삭감함으로써 자기들 자신의 매물들을 고객들에게 더 매력적이게 하려고 한다. 경험이 보여주듯이, 단일의 생산자는 자기의 제품이나 자기의 효율을 개선할 유인을 훨씬 덜 가질 것이다.

실제로 자본주의에는 풍부한 계획이 있다. 개인들과 기업들은 항상 계획을 한다. 그런 계획들은 자기들이 살 것 혹은 사지 않을 것에 관

한 고객들의 일상의 결정들로부터 끊임없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고, 생산자들은 자기 계획들을 그에 따라 재빨리 조정한다. 만약 그들이 실수를 한다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단지 그들뿐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전 생산이 계획될 때는 사정이 아주 다르다. 그러한 거대한 기획들은 실행하기가 느리다. 피드백이 더 적은데,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더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활력과 진보가 덜 있다. 그리고 만약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 전 국가가 고통을 겪는다.

*비생산적인 투기.* 많은 비판자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존재하는 금융 투기, 즉 주식들이나 통화 가격들, 선물 시장들 그리고 기타 등등에 투기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것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시간, 정력 그리고 돈을 많이 낭비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사실상, 투기는 활기찬 경제와 자본 시장의 징후이고, 투기자들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정말 생산한다. 생산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투기자들이 자기들의 경쟁자들에 필적해야 한다면 그들은 단지 몇 개의 기업들이나 단일의 부문에 대단히 정통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디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회수할지에 관해 그들이 내리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들은 그런 기업들과 부문들의 건강과 가망에 관한 귀중한 지표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돈을 어디에 위탁할지에 관해 더 나은 결정을 하는 것을 돕는다. 투자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이것은 더 큰 투자, 자본 창출, 그러므로 생산적 효율을 장려한다—그리고 그것은 자원들을 자기들의 가장 생산적인 용도들로 빨리 보낸다.

*비민주적 생산*. 또 하나의 비판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사실상 생산이 대중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이익이 되도록 구조화되어야 할 때 생산이 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생산이 소유자들의 단기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이익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생산은 민주적 통제 하에 놓여져야 한다.

불행하게도, ‘민주적(democratic)’ 통제는—압력 집단들의 권력과 투표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관리들의 자기 이익을 포함하는, 정치의 모든 문제들을 가진—정치적 통제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정치적으로 운영되는 경제는—진보가 사물들을 과열시키게 하기보다 현재의 관행들을 유지하는 데 명백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현재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항상 다음 선거를 지켜보고 있는 정치인들보다 누가 더 단기주의적인가? 대조적으로, 만약 소유자들이—자본을 끌어들이고 그것의 가치를 증가시킬—자기들의 사업의 장기적 힘을 촉진한다면 그들은 정말 이익을 얻는다.

## 기업 권력

*대기업들*. 자본주의에 관한 많은 비판은 대기업들의 권력에 집중한다. 대기업들은 정치인들, 여론 그리고 소비자 선택들을 조종하고, 국가로부터 규제와 조세 특권을 끄집어내며, 독점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체로 간주된다.

그러나 독점과 대기업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부분이 아니다. 자본주의 경쟁 하에서는, 회사가 크게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대중에 봉사하는 것이다. 가장 큰 회사조차도 다른 큰 회사에 의해, 혹은 그것의 사업의 여러 부분들을 잠식하는 더 작은 회사들에 의해, 도전받을 수 있다. 그들이 독점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로부터의 조세나 규제 특권들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연고주의(cronyism)이다.

그것의 책임은 확고하게 국가에 있다. 국가는 과세하고 법률들과 규정들을 제정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심지어 당신을 감옥에 처넣거나 당신을 전쟁에서 싸우게도 할 수 있다.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대기업들의 권력에 관해 얼마나 많이 불평하건, 국가가 실제 권력이 놓여 있는 곳이다. 우리는 대(大)생산자와 기성 생산자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필요로 한다.

*경영 대 소유.* 어떤 비판자들은 경영이 소유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주식이 상장된) 큰 민간 기업들이 역기능적이라고 주장한다. 경영자들은 제한되지 않고, 강력하며, 너무 많은 보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그저 분업의 또 하나의 예일 뿐이다. 확실히, 회사들의 소유자들(즉 주식 보유자들)은 자기들의 경영자들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하는데, 하기가 많은 국가들에서 나쁜 회사법이 그 권력을 침식하긴—정치가 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파괴시키는 또 하나의 사례—했다.

또한, 기업이 더 클수록, 그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는 더 숙련된다. 세계 최상급의 국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고, 그래서 예상 밖이 아니게도, 그들은 많은 보수를 받는다. 그러

나 반드시 *너무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최고 경영자가 이직하기로 결정할 때, 회사의 가치는 곤두박질칠 수 있다. 경영자들이 돈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들이 결정할 일이 되어야지, 다른, 정치적인, 동기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결정할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전 세계적 관계

*다국적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보다 더 많은 비판을 끌어들이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 비판자들은 그것들이 특별 보호들을 얻으려고 로비하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국가들 사이에서 비용을 전가시키고, 오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자기들의 공정들을 가난한 국가들에 이동시킨다고 비난한다. 세계 시장들은 대자본에 의해 잠식되고, 다국적 기업들은, 어떤 것들은 국가 전체만큼 큰데, 시장 경기자들보다는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행동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들이 이 규모로 성장하게 허용하는 것은 정부이고 연고주의이다. 그리고 국가들이 상이한 조세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국가들이 성장 제고 사업과 자본을 끌어들이기를 원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사실상 가난한 국가들에 막대한 투자들을 했고, 그들의 산업들을 더욱 생산적이게 하는 자본을 가져왔으며, 근로 기회들을 개방했고, 임금을 올렸다. 부유한 국가들의 국민들이 선택할 것보다, 약간의 일이 더 힘들고, 약간의 공정들이 덜 깨끗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대안은 이 국가들의 발전이 늦추어지고, 더 쉽고 더 깨끗한 생산을 제공할 그들의 희망이 연기되며, 그들의 국

민들이 더 오랫동안 빈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에 관해서는, 다국적 기업들과 전 세계 시장들은 실제로 세계 평화를 촉진했다. 신흥 경제들에 대한 그들의 투자들은 수십억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건지는 데, 그리고 평화와 평화가 가능하게 하는 무역을 보존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번창하는 중산 계급을 창설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맥도널드화*(McDonaldisa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비판자들은 부유한 국가들의 투자와 함께 또한 문화적 제국주의도 가서, 서양 브랜드, 생활양식 그리고 관행이 현지의 것들을 압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실은 세계화가 실제로 더 다양한 재화들과 서비스들의 보급을 촉진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동유럽과 동남아시아가 더 이상 서유럽에서 차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쪽 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제품들을 더 많은 국가들로부터 즐길 수 있다. 무역이 신흥 경제들에 준 부의 증가는 더 많은 그들을, 자기들의 가치와 문화를 지닌 채, 학생으로나 관광객으로서 부유한 국가들에 데려온다. 그 결과는 문화적 제국주의가 아니라 다양성과 선택이다.

*일자리 보호*. 신흥 경제들이 자기들의 ‘유치(infant)’ 산업들을 성장시킬 수 있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신흥 경제들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종종 이야기된다. 그것은 부유한 국가들이 자기들보다 싼 값으로 팔지 못하게 할 통제, 수입 관세 그리고 수출 보조금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가난한 나라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의 부족이

다. 그리고 그들이 외국 투자에 개방하는 것은 그것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다. 새로운 자본은 그들을 더욱 생산적이게—세계의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 것을 돕게—한다.

보호주의는 오직 비자유 국가들에서만 가능한데, 거기서는 국가들이 납세자들을 강제하여 혜택받는 산업들에 보조금을 주게 할 수 있거나, 수입업자들에 대해 관세와 수입 할당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들은 지금 전 세계적이다. 국가들은 시장들의 일부가 되는 것에서 이익을 얻고, 보호주의 장벽 뒤에서는 발전—하거나 심지어 따라가는 것조차도—할 수 없다.

## 연고자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많은 자본주의 비판자들은 자유 시장들과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항상 로비 활동과 담합이 있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웬만하게 잘 작동하게 할 강력한 규제들과 규칙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옹호자들도 역시 담합과 연고주의를 거부하는데, 그것들을 자본주의에 고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참으로, 그것들은 사회주의 체제들에 더 충만해 있다. 그리고 시장들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정의(正義)에 관한 그리고 재산을 자유롭게 소유하고 거래할 권리들에 관한—규칙들은 비판자들이 제안하는 자세한 규정들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더 일반적이다.

오히려, 정부는 경제를 운영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들과 자유들을 보호하는 자기의 주요 역할들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경제와 국가 사이의 일종의 분업이다. 역사의 슬픈 교훈은 공무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지도 더 윤리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다. 참으로, 국가 권력은 그것을 전개할 사람들 가운데서 최악의 사람들을 끌어들어서, 그들이 더 큰 실수들을 할 수 있게 한다.

## 11 자본주의의 미래

자본주의는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세계 도처에 평화와 번영을 보급할 많은 기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약점들도 가지고 있고, —그것의 연약한 메커니즘들을 파열시키고, 그것의 효과들을 왜곡하며, 대중 사이에서 그것의 지지를 서서히 해쳐서—그것을 더 약하게 할 수 있을 위협들에 직면한다.

### 강점들

*번영.* 주요 자본주의 찬성론은, 심지어 오늘날의 고도로 규제되는 형태에서도, 그것이 번영을, 특별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급속하게 제고한다는 것이다. 세계 시장들과 자본의 최근의 세계화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극심한 빈곤에서 건져 내었고, 소득과 부를 증가시켰으며, 더 나은 보건 의료, 더 긴 수명, 하락하는 유아 사망률, (특히 여성들 가운데서) 증가하는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 능력 그리고 많은 다른 인간 편익들을 가져왔다.

덧붙여서, 세계 자본에의 접근은 신흥 경제들의 기업들을 더 생산적이게 하였다. 그것은 현지 사람들이 더 좋고, 더 값싸고, 더 풍부한 현지 제품들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한다. 더 큰 생산성은 또한 새로운 사업들이 성공

하는 것을 더 쉽게 하고, 새 기업들을 시작하는 위험을 줄이며, 혁신과 진보를 장려하기도 한다.

*마음을 해방하기.* 생산을 더 쉽고 더 생산적이게 함으로써, 인류를 단조롭고 고된 일로부터 해방시키는 재화들을 공급함으로써,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매일의 존재에 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해방하여 자기들의 마음을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적용하게 하고 자기들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기들의 지력을 사용하게 한다. 그리고 물론 많은 상이한 두뇌들을 해방하여 우리가 사는 법에 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진보도 촉진한다. 상이한 사람들은 재화 시장들과 또한 사상 시장들—에서 시험될 수 있는 상이한 계획들을 내세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단일의 국가 계획에 전념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하는 것을 기초로 일을 추진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다.

*많은 개인적 이상향들.* 자본주의는 다원주의적이다. 브레넌이 말하듯이, 자본주의는 하나의 이상향(utopia)을 촉진하지 않는다—그것은 많은 이상향들을 촉진한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하는 꼭 그대로 다른 야망들과 직업들을 추구할 수 있다. 그들은 정부가 자기들에게 집합적 사업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할당할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들은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천국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전부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다. 그들은 부르주아 계급들이 한다고 마르크스가 암시했듯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할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는

많은 상이한 꽃들이 필 수 있게 한다.

인간 본성. 자본주의는 또한 인간 본성에 뿌리박고 있기도 하다.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재산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소유물들은 그들에게 중요하고 그것들의 물질적 가치를 넘어 그들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정의(正義) 관념들도 마찬가지로 심오한데, 자기들이 하는 약속들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심오한 것과 같다.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면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행동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상태와 자기들의 가족들의 그것을 더 낫게하기를 원한다. 이것들은 자본주의의 바로 그 기초들이다. 그래서 가장 무자비한 집합주의 국가들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시장들이 갑자기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니다.

## 약점들

국가주의와 연고주의. 오늘날 흔히 ‘자본주의(capitalism)’라고 불리는 것을 옹호하기는 어렵다.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자본주의’로 통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 기업들이 대단히 과세되고 대단히 규제되는 혼합 경제들인데, 거기서는 국민 소득의 반 이상이 정부 수중에 있고, 거기서는 국영 기업들이 보건 의료, 교육, 공익사업, 철도 수송 그리고 우편배달을 포함하는 중요한 부문들에서 독점이나 준(準)독점을 가지고 있다. 종종 그것들은 대기업들이, 때때로 재정적 지원의

대가로, 정치인들로부터 특권들을 끄집어냄으로써 자기들의 경제 권력을 증대시키는 연고 경제(crony economies)이다.

그러나 소련, 모택동의 중국, 북한 그리고 쿠바와 같은 국가들에서 지배했던—책임과 민주주의가 없고, 아마도 1억 명의 목숨을 빼앗았을 독재 정권, 정당 수뇌부, 숙청 그리고 기아를 가진—‘사회주의(socialism)’를 옹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차이는 연고주의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 반면, 이 해악들이 사회주의의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자발적 교환의 원리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사회주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지휘하는 정치 권력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들은 의견이 맞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선호하는 재화 혼합을 소비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에 의견을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집합적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집합적 수단을 전제하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집합적 사업에 참가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다양성과 선택에 의존하는 반면, 사회주의는 영합과 권력에 의존한다. 그러나 영합은 진보의 친구가 아닌 반면, 권력은 가장 공공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조차도 타락시킨다—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가장 무자비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다. 누구나 사업들이 오직 공개경쟁에서 고객들에게 봉사함으로써만 번창하고 국가로부터의 연고자 특권들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순수’ 자본주의를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들을 강제하는 어떤 국가 권력 장치 없이

모든 사람이 기꺼이 집합적 사업에 참가하기로 동의하는 ‘순수’ 사회주의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

*기업 위선.* 그러나 정치인들이 연고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권력은 사업가들이 자본주의의 가장 약한 방어자들 중 일부이거나, 심지어 가장 큰 적들이기도 한, 이유를 설명한다. 회사들은 자기들 자신의 부문에서 거의 경쟁을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자기들이 위험한 ‘악덕업자(cowboy)’ 운영자들로부터 대중을 구하고 있다고 종종 주장하면서—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규제들을 요구한다. 비록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를 공언할지라도, 그들은 교부금, 보조금, 규제 그리고 정치인들이 줄 권한이 있는 기타 특권들에 대해 찬성론을 주장하는 데 노련하다.

사업가들이 기업가 정신과 자유 시장들을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하기 꺼려하)는 것은 확실히 자본주의의 엄청난 약점이고 자본주의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다. 자본주의를 연고주의와 혼동함으로써, 그러한 옹호자들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 주의(主義)에 득이 안 될 일을 한다. 자본주의의 개념은 이미 이해하기가 충분히 어렵다. 개입들의 즉각적인 편익들은 파악하기 쉽지만, 시장들과 경쟁이 작동하게 내버려두는 장기 이득들은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시장 질서가 얼마나 연약하며, 그것이 작은 정치적 개입들에 의해서조차도 얼마나 견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뜨려질 수 있는지 깨닫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잘못된 설명들.* 더군다나, 대부분의 선진 경제들에서 현실이 혼합 경제이므로, 어느 사건들이 자본주의 자체에 의해 야기되고 어느 것들

이 그것을 왜곡시키는 정치적 개입들에 의해 야기되는지 사람들이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정치인들과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2007/8년 금융 붕괴가 자본주의와 그것이 창출한 ‘탐욕스러운 은행가들(greedy bankers)’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은 그 위기가 사실상 수십 년의 낮은 이자율 및 느슨한 화폐 정책에 의해 연료가 공급되었고, 은행들이 악성 신용 위험(bad credit risks)이라고 알고 있었던, 가난한 가구들에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게 한 (의도는 좋지만 잘못된) 정부 규제들에 의해 점화가 되—어서, 여러 금융 기관들을 붕괴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재난이 촉발되었다고 되받는다. 그들은 또한 그 위기에 대한 정부들의 반응—자금 지원으로 은행들을 구제하는 것, 더욱더 많은 화폐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차입 비용을 더욱더 줄이는 것—은 그저 그 고통을 지연시키고, 경제적 침체를 낳을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올바른 해결책은 은행들을 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은행들을 고치는 것, 지속 가능한 화폐 및 신용 정책들을 채택하는 것, 그리고 건전한 화폐를 회복하도록 시장들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므로 금융 붕괴의 흔한 설명들은 잘못됐다. 그러나 2007/8년의 사건들, 적용된 잘못된 개선책들, 그리고 이어진 오랜 기간의 저성장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들에 대한 광범위한 환멸을 일으켰—고 더욱더 많은 통제들, 규제들 그리고 기타 정부 개입들에 대한 요구들을 초래했—다. 틀림없이, 이것은 모두 자본주의 개념이 심각하게 위협받도록 내버려두었다.

## 기회들

*자본주의의 확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그 자체는 계속해서 확산된다. 비록 한때는 공산주의가 전 지구를 덮을 것 같았지만, 오늘날에는 자본주의 사상과 관행이 침투하지 않은 세계 지역들은 거의 없다. 1990년대 초기 소련의 멸망 후에, 아시아,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은 세계 무역망 속으로 투신했고, 국민들이 자기들 자신의 기업들을 세우고 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개혁들을 제도화했다. 그것은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 기업을 운영하거나 그 안에서 일하고 바로 그 자유와 번영을 더 많이 갈망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중산 계급을 창설했다. 더욱더 많은 시장들이 개방되는 것에 더해 전 세계적 통신과 운송의 발달로, 이 변화는 반드시 가속화한다. 정치인들은 자유 무역이 국내 일자리들을 빼앗는 것을 걱정할지 모르지만, 모든 경제학자들은 그것의 편익들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자기들이 지금 향유할 수 있는 값싸고 품질 좋은 재화들을 얻기 위해 자본주의와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 발전에 완전히 참가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은 도전일 뿐만 아니라 기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비록 가난한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하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산들은 자본이 아니다. 참으로, 그들의 저축은 종종, 비생산적으로, 현금으로 보관된다. 그리고 페루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 소토 폴라(Hernando de Soto Polar)(1941- )가 언급했듯이,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일부는

자기들이 지을 수 있는 곳에 주택들을 짓지만, 정당한 권리 증서가 없고, 점포들과 상점들을 국가가 요구하는 세세한 허가들을 얻지 않고 운영한다. 그들의 주택들과 점포들이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것들을 대출금과 계약에 대한 담보물로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결코 자기들의 사업들을 키울 수 없든지 진정한 재정적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들은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땅에 대한 권리 증서를 발행하고 규제를 더 간단하면서 더 현실적이게 하여—그들의 저축을 생산적인 자본으로 바꾸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나라의 경제에 대한 진정한 이해관계를 줌으로써—그들이 번영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지리적 한계도 도덕적 한계도 없다.* 자본주의와 새로운 시장들의 확대에 대한 자연적인 한계는 없다. 혁신은 계속해서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기업가들이 사람들의 욕망과 필요를 더 잘, 더 값싸게, 더 빨리 그리고 더욱더 먼 곳들을 건너서 더욱더 외딴 지역들까지 채울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한다. 그러한 자유와 진보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 아무도 모른다—이것은 비관론자들과 계획자들을 우울하게 만들지만 인류의 태반을 차지하는 개인주의자들과 낙관론자들을 고무함에 틀림없다.

또한 그 기회들이 물질적 편익들에 멈추지도 않는다. 자본주의 패키지에 속하는 소유, 독립, 자유, 평화 그리고 강압 거부의 가치들도 역시 자유 시장들과 무역의 확산에 의해 강화된다. 그 점은 인간 정신을 향상시키는 도덕적 이득임이 틀림없다.

## 위협들

지식인들. 아마도 자본주의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지식인들에서 생길 것이다. 그들의 동기들은 공공 정신이 투철할지도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들은 시장에 의해 저평가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들이 새로운 질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믿지 못하거나 할지 모른다. 어느 쪽이든, 대중과 정치인들은 여전히 대체로 지식인들을 전문가로 넓고 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자본주의 비판들을 받아들이며, 자본주의가 중대한 수선을 필요로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의 본질과 복잡한 작동들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종종 그것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무나 자주, 그들은 그것의 문제들을 상상하고, 원인들을 오진하며, 잘못된 개선책들을 적용한다.

*교과서 오류들.* 예를 들면, 많은 지식인들은 교과서 ‘완전 경쟁(perfect competition)’ 모형에 여전히 깊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많은 공급자들이 동일한 가격들에 동일한 재화들을 판매한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가격이나 시장 점유율에서의 어떠한 차이도 잘못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슈퍼마켓 체인의 빠른 성장을—그것이 제공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그저 선호할 뿐이라는 조짐으로서 보다는—시장이 ‘불완전(imperfect)’함이 틀림없다는 조짐으로서 간주한다. 가격을 삭감하는 똑같은 슈퍼마켓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고객들을 얻으려는 시도로서 보다는 ‘약탈적 관행(predatory prac-

tion)’으로서 간주된다. 그 결과, 그들은 기업들의 성장을 제한하거나 기업들의 가격들을 통제함으로써—시장들을 그렇게 동태적이게 하는 바로 그 힘들을 절멸시킴으로써—가공의 ‘완전 경쟁’을 회복할 것을 제안한다. 경제생활이 불완전해서, 발생하는 공백들을 기업들이 메우려 하고—그 밖의 모든 사람의 것들과 똑같은 제품들이 아니라—다르고, 더 낮고, 더 값싼 어떤 것을 기업들이 제공하려고 다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경쟁이 작동한다는 점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포퓰리즘. 물론 자본주의가 국가 사회주의에 의해 압도될 우려는 그것이 1990년대 이전에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덜하다. 사회주의는 대(大)설계(grand design)가 되기보다 자본주의의 작동들과 결과—불평등 같은 것—에 관한 일련의 불평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결코 모든 사회악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그것의 가치는 경제체들의 효율적인 생산과 분배에 있다. 그리고 비판받는 많은 결과들은 실제로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 개입의 결과들이다. 포퓰리즘 정치(populist politics)는, 자기의 지나치게 단순한 진단들과 처방들을 가지고서, 경제에 더욱더 개입했다. 우리는 생산 자산들의 국가 소유라는 개념으로부터 그것들의 국가 통제라는 현실로 이동했다. 그러한 정치적 개입이 비뚤어진 효과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잠행성 통제. 그렇지만, 규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많은 이유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규제들은 그것들을 집행하는 데 정부 기관들을 필요로 하고, 그런 기관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전형적으로 새

롭고 더욱더 복잡한 규제들의 주요 원천이 되는 데, 타고난 이해관계  
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더 크고 더 중요한 경제적 경기자가 됨에 따  
라, 지대 추구, 연고주의 그리고 부패의 더 많은 기회들이 있다. 그리  
고 로비 활동으로부터의 잠재적 편익들은 더 커진다. 정치인들은 권  
력, 지위 그리고 특권이 증대하고, —자기들이 재선을 위해 의존하는  
유권자에게 자기 자신의 미덕을 신호하여 알리면서—자기 자신의 가  
치들을 경제 및 사회생활에 부과하는 것을 즐긴다.

이 모든 것이 불행하지만, 더욱 나쁜 것은, 개입의 장기 효과들이  
아주 빈약하게 이해되고 아주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때문  
에, 규제가 거의 항상 역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최저  
임금 법률들은 빈곤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조치 같을지 모른다. 그러  
나 사실상 그것들은 터무니없는 값을 매겨서 가난하고, 어리고, 미숙  
련일지 모르는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완전히 쫓아냄으로써 반대의 효  
과를 가지고 있다. 혹은 다시, 신약의 장기간 시험을 요구하는 규제들  
이 대중을 아직 시험해 보지 않은 약들에서 면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  
지만, 똑같이 그것들은 말기 환자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아마 구할지  
도 모르는 신약들을 복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임대료 통제들  
은 주택을 모든 사람에게 입수 가능하게 하는 것 같을지 모른다. 그러  
나 부동산을 세놓는 것을 덜 유리하게 함으로써, 그것들은 집주인들  
이 주택들과 사무실들을 시장에서 거둬들이게 하거나 그것들을 덜 잘  
건사하게 한다.

슬프게도 이 결과들에 대해 비난받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자본  
주의이다—이것은 변함없이 더욱더 많은 규제들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일단 제자리에 놓이게 되면, 규제들은 제거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것들에 의존하는 기득 이익 집단들—예를 들어, 정책을 관리하는 규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대가 통제되는 썩은 지대들을 누리는 사람들도—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확대되고, 불규칙하게 퍼져나가는 규제는 자본주의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

## 자본주의의 지속성

그러나 자본주의에 관해 여전히 아주 놀랄 만한 것은 그것의 탄력성과 지속성이다. 이런저런 형태로, 그것은 천 년 동안 우리와 같이 있었다. 집합주의 사회 질서이기보다 개인주의 사회 질서로서, 그것은 삶이 개인들에게 주는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혹은 기술적 현실들도 다룰 자기들 자신의 방식을 개인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각 개인의 창조적 소질을 이용함으로써, 그것은 부적절한 규제들에서, 오도된 경제 정책들을 거쳐, 심지어 전체주의적인 국가 계획과 통제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장 파괴적인 정치 개입들도 견뎌낼 수 있다.

틀림없이, 오늘날 지배하는 정치화(政治化)된 형태의 자본주의는—정치와 국가 개입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체계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양식으로, 자유롭게 작동하게 해서—개량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자본주의와 같은 어떤 것이 없이는, 인간종(種)을 위한 번영하고 자유로운 미래를 보기는 어렵다.

## 12 추가적인 읽을거리

### 적대적인 개론서들

얼마나 많은 소위 자본주의 개론서들이 사실상, 카를 마르크스의 역사적 분석에 의해 고무된, 자본주의 비판들이지는 놀랄 만하다.

예를 들면, 이것은 제임스 펄처(James Fulcher)의 《자본주의: 매우 짧은 개론》(2004)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이윤, 임금 체계, 착취, 도시 빈곤 그리고 역사적 대세들에 대한 마르크스의 병적인 집착을 공유하고, 바로 그 사고를 금융 불안정과 세계화에 대한 오늘날의 병적인 집착들에 적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그것의 배후에 있는 사상들을 설명하지 못한다.<sup>1</sup>

위키피디아의 자본주의 표제어(<https://en.wikipedia.org/wiki/Capitalism>)는 많은 필자들의 작품인데, 다시 대개 마르크스주의자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의들로부터, 그것의 역사에 관한 그들의 견해로, 자본주의에 관한 잡다한 것과 특성으로, 시장들, 재산과 이윤, 금융 자본, 독점, 시장들·자본주의 및 전쟁, 다시 자본주의 유형들, 정부의 역할 그리고 오직

---

1 (옮긴이 주) 이 책은 2019년 영어 수능 시험에 지문으로 이용되었는데, 출제자의 이 책 선정은 문재인 정권의 반자본주의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

간단하게만 반격되는 더 많은 비판들로 훅훅 난다—독자들을 전적으로 어리둥절하게 내버려둔다.

장하준(Ha-Joon Chang)이 낸 《그들이 당신에게 자본주의에 관해 말하지 않는 23가지(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2011)는 에세이들의 시리즈인데, 대개 자본주의가 나쁜 무리 중에 최상이지만 통제되고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암시한다. 그것은 기업이 단기주의적이라고, 세계화가 달성한 것이 거의 없다고, 부가 부자들의 곁에 머문다고, 자본주의가 덜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고, 그리고 자유 시장들이란 하여간 존재하지 않는다고 암시한다.

장의 책은 팀 워스탈(TIM WORSTALL)의 《우리가 당신에게 자본주의에 관해 말하고 있는 23가지(23 Things We Are Telling You About Capitalism)》(2014, <http://tinyurl.com/y8fxth82>)와 나란히 읽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인들이 더욱더 단기주의적이라고, 보호주의가 작동되지 않고 강압에 의존한다고, 규제가 연고주의를 촉진한다고 그리고 정부들이 자유 시장들보다 훨씬 덜 진보적이고 유연성이 덜하다고 반격한다.

## 호의적인 개론서들

또한,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설명할 더 나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이 쓴 유용한 개론서들도 많이 있다. 아마도 출발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좋은 곳은 밀턴 및 로즈 프리드먼(Milton and Rose Friedman)의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 비디오 시리즈와 책(1980)일 것인데, 이것은 단호하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자유방임

불개입 정책을 옹호하고, 자유와 경제적 진보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며, 높은 세금, 국가의 학교 교육과 기타 서비스들에서의 낮은 수준들, 화폐 정책 그리고 복지(여기서 프리드먼 부부는 음의 소득세를 제안한다)와 같은 많은 정책들과 씨름한다.

동일한 저자들은 더 앞에 나온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1962)에 관해 합작했다. 화폐 정책에 심하게 집중하여(그 당시 인플레이션은 중대한 쟁점이었다), 비록 정책 재료의 약간이 시대에 뒤떨어졌을지라도, 독점들을 창출하는 데서의 정부의 역할, 자본주의가 어떻게 차별을 줄이는지, 규제들이 어떻게 대중이 아니라 제공자들에 이익을 주는지,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에 관해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다.

로버트 헤센(Robert Hessen)은 짧은 자본주의 개론을 《경제학과 자유의 온라인 도서관(Online Library of Economics and Liberty)》(<http://www.econlib.org/library/Enc/Capitalism.html>)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주의(capitalism)’가 어떻게 자본가들이 우리를 19세기 영국의 어두운 공업 중심 도시들로 도로 보내기를 원한다고 아직도 사람들이 생각하게 방치하는 적대적인 용어로서 고안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개선책이라고 생각되는 것—합의와 조화의 공상적 사회주의(utopian socialism)—은 작동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마르크스는 ‘과학적(scientific)’ 사회주의를 고안하였고, 자본주의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본주의가 변창했을 때, 비판자들은 이번에는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와 ‘과잉(excess)’에 관해 불평하는 것으로 유턴했다. 슬프게도,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방어하는 데 불충분했다.

조금 더 철학적인, 제이슨 브레넌(Jason Brennan)의 《자본주의가 어때?(Why Not Capitalism?)》(2014)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도덕적 논거를 비교하여, 사회주의 비전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비전보다 더 유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자발적인 협동, 상호 존중 그리고 타인들에 대한 관심에 근거해 있다. 사회주의와 달리, 그것의 원칙들은 작은 사회들뿐만 아니라 큰 사회들에도 작동한다. 그것은 또한 자원들을 보호하고 증가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개발하고 표현하며 자기들 자신의 이상향 비전을 추구할 수 있게도 한다.

아서 셸던(Arthur Seldon)의 《자본주의: 축약판(Capitalism: A Condensed Version)》은 (1990년 책에서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대에 뒤떨어졌지만, 산업 혁명이—흔한 견해와 반대로—어떻게 사람들에게 오두막 대신 주택을, 누더기 대신 값싼 의복을, 더 짧은 근로 시간을, 더 나은 위생을 그리고 많은 다른 편익들을 주었는지 고찰한다. 그 다음 그것은 재산, 가격 체제 그리고 고객 권리들과 같은 자본주의의 기초 원리들을 개설(概說)하고, 그 후 복지, 교육, 보건 의료 그리고 주택이 어떻게 해서 국가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설명한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랠프의 꽤 괜찮은 식료품점(Capitalism, Democracy, and Ralph's Pretty Good Grocery)》(2001)에서, 존 뮐러(John Mueller)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상적이지도 비참하지도 않지만, 자기들이 하는 일이 ‘꽤 괜찮다(pretty good),’고 설명한다. 비록 자본주의가 탐욕에 근거해 있다고 이야기될지라도, 그것은 사실상 정직하고, 공정하고, 예의 바르고, 동정심이 있는 행동

들을 보상한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평등주의적이고 참여적이라고 이야기되지만, 그것은 사실상 혼란스럽고, 불평등하고, 냉담하다. 자기들 사이에서 서로 힘을 모아, 그것들은[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자유, 안전 그리고 번영을 준다—그러나 낙원은 주지 않는다.

맷 리들리(Matt Ridley)의 강연, 《자유 시장 반자본주의 옹호 논거(The Case for Free Market Anti-Capitalism)》(2017)는 자유 시장들이 연고 자본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독점과 같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기업들은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용어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경제적 자유에가 아니라 정부 특권, 보조금, 조세 감면 그리고 규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는 빈곤을 20년 동안에 반으로 줄였고, 생산성과 관용을 제고했으며, 차별과 불평등을 줄였다.

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의 《시중에서 최상의 책(The Best Book on the Market)》(2008)은 경제적 개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짧은 안내서다. 그것은 시장들이 어떻게 해서 결코 ‘완전하지(perfect)’ 않은지—그렇지만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불완전들인지—를 보여준다. 그래, 시장 실패가 있다. 그러나 정부 실패는 더욱더 나쁘다. 교환은 가치를 높인다. 통제들은 그것을 파괴한다. 이 책은 가격들과 경쟁의 자원 조종 역할, 정직과 재산의 역할, 그리고 시장의 도덕을 다룬다.

피터 버거(Peter Berger)의 《자본주의 혁명(The Capitalist Revolution)》(1986)은 자본주의의 특징들—재산, 자본재, 자유 시장들, 자동적인 자산 배분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법체계—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효율과 진보를 촉진하는 데 적절하게 하는지 보여준다. 그것

은, 사회주의와 다르게,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피난처를 제공하는데, 사회주의는 강압에 의해 강요되어야 한다—그리고 사회주의 비전이 더 옹대할수록 그 지배가 더욱 전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기가 만들어내지만 자기에 반대하는 지식인들과, 법적 특권들을 얻으려고 로비하는 이익 집단들과 같은, 바이러스들에 시달린다.

조지 리스먼(George Reisman)의 《자본주의의 자비로운 본질(The Benevolent Nature of Capitalism)》(2012)은 경제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가 평화, 진보 그리고 안전에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한다. 자본주의는 유용한 자원들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며, 막대한 생산성을 창출한다. 가격들과 이자율은 투자를 최고 가치 용도들로 돌리고, 편익들을 소유자들뿐만 아니라 비소유자들에게도 전달한다. 자본주의는 합리적이지, 무정부 상태가 아니고, —독점이 아니라—경쟁에 근거하고 있다.

## 자본주의와 빈곤에 관하여

자본주의의 확산이 어떻게 빈곤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는 많은 호의적인 책들이 있다. J. P. 플로루(J. P. Floru)의 《지상의 낙원들(Heavens on Earth)》(2013)은 칠레, 뉴질랜드, 중국 그리고 홍콩에서 경제 자유화가 어떻게 성장을 높였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게조차도 부를 증가시키고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보여준다. 조세, 규제 그리고 중앙 계획은 그저 빈곤을 연장할 뿐이라고, 그는 결론짓는다.

스웨덴 경제학자 요한 노버그(Johan Norberg)의 《세계적 자본주

의를 변호하여(In Defence of Global Capitalism)》(2001)는 자본주의와 무역이 번영, 교육, 보건 의료, 기대 수명, 유아 생존, 기타 등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고전적 해설이다. 사실들과 숫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세계화와 경쟁의 광범위한 편익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대만과 중국, 서독과 동독, 남한과 북한 같이) 이웃하는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성과를 대비한다. 노버그는 그 주장을 자기의 《진보: 미래를 기대할 열 가지 이유(Progress: Ten Reasons to Look Forward to the Future)》(2016)를 가지고 갱신하였는데, 이 책은 자유화 후에 발생한 식품 품질, 위생, 기대 수명, 환경, 평화, 읽고 쓰기 능력, 자유 그리고 평등에서의 개선들을 개설(概說)한다.

에르난도 데 소토 폴라(Hernando de Soto Polar)에 의한 《자본의 신비(The Mystery of Capital)》(2001)는 자본주의와 재산권들이 어떻게 그저 가치가 없을 뿐인 것들을 생산적인, 가치 있는 자본으로 바꾸는지 보여준다. 그는 자기의 고국 페루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택들과 점포들을 세우지만, 이것들이 유용한 ‘자본(capital)’이 아닌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 합법적인 권리 증서도, 거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세세한 허가들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그는 이런 법적 권리들을 부여함으로써—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진정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그리고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이 불능 자산들(dead assets)이 자본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철학과 도덕에 관하여

톰 파머(Tom Palmer)가 엮은 《자본주의의 도덕(The Morality of Capitalism)》(2011)은, 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버넌 스미스(Vernon Smith)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Mario Vargas Llosa))를 포함하여, 철학자들, 작가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싱크 탱크의 일원들에 의한 에세이들의 시리즈다. 그들은 무역이 해외 원조보다 더 나은 빈곤 퇴치 조치라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대단히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탐욕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은 혁신과 가치 창출을 자극한다. 그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창출한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적 가치들을 촉진하고 방어한다.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에 의한 《민주적 자본주의의 정신(The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1982)은 자본주의를 종교와 인간 정신의 면에서 고찰한다. 그것은 민주적, 다원주의적, 자본주의 사회가 클럽, 교회, 자선 단체 그리고 기타 시민 사회 기관들을 통해 돌보는 공동체들(caring communities)을 창설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 생활과 완전성의 이 본질적인 부분은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정치화되고 당국이 책임을 넘겨받을 때 상실된다.

아인 랜드(Ayn Rand)의 《자본주의: 알려지지 않은 이상(Capitalism: The Unknown Ideal)》(1966)은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에세이들의 폭 넓은 시리즈인데, 급진적 자본주의(radical capitalism)에 대한 랜드의 강건한 지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그것은 자본주의를 인간의 본성, 진화 그리고 권리들에 뿌리박게 하고, 전쟁이 자본주의에서가 아니라 국가주의에서 생긴다고 주장하며, 대기업의 박해를 한

탄하고, 방송 시장들을 논하며, 특허권과 저작권 형태의 재산을 검토하고, 자본주의의 ‘보수적인(conservative)’ 지지자들이 자멸적으로 그것의 이상들을 전혀 이해, 지지, 방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IEA에 대해

이 연구소는, 유한 합자, 연구 및 교육 자선 단체(No. CC 235 351)이다. 그것의 사명은 시장들이 경제 및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의 역할을 분석하고 해설함으로써 자유 사회의 근본적인 제도들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IEA는 자기의 사명을 다음을 통해 달성한다.

- 고품질의 출판 프로그램
- 콘퍼런스, 세미나, 강의 그리고 기타 이벤트들
- 중고등 및 대학생들에 대한 봉사 활동
- 매체 도입과 출연의 중개

1955년 고(故) 앤터니 피셔 경에 의해 설립된 IEA는 교육 자선 단체이지, 정치적 조직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정당이나 단체로부터도 독립되어 있고, 어떤 선거나 주민 투표에서도 혹은 어떤 다른 때에도 어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에 영향을 미칠 생각으로 활동들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것의 재원은 출판물의 판매, 콘퍼런스 참가비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로 조달된다.

자신의 메인 시리즈의 출판물들 외에도 IEA는 또한 계간지 《경제 문제 (Economic Affairs)》도 출판한다.

IEA는, 자기의 업무에서, 유명한 국제적 대학 자문 위원회와 명예 연구 위원들의 저명한 패널의 도움을 받는다. 다른 학자들과 함께, 그들은 출판될 만한 IEA 출판물들을 논평하며, 그들의 논평들은 저자들에게 익명으로 전

달된다. 그러므로 모든 IEA 페이퍼들은 지도적인 학술 잡지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엄격한 독립적 심사 과정을 밟는다.

IEA 출판물들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널리 수업에서 사용되고 교재로 채택된다. 그것들은 또한 전 세계에 걸쳐 팔리기도 하고 종종 번역/재간된다.

1974년 이래로 IEA는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개의 비슷한 기관의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창설하는 것을 도왔다. 그것들은 모두 독립적이지만 IEA의 사명을 공유한다.

IEA의 출판물들에서 표현된 견해들은 필자들의 견해들이지, (법인 견해를 가지지 않는) 이 연구소의 견해들이 아니며, 그 관리 이사들이나 대학 자문 위원들이나 중견 직원들의 견해들도 아니다.

연구소의 대학 자문 위원들, 명예 연구 위원들, 이사들 그리고 직원들은 다음 페이지에 열거되어 있다(그 다음 페이지 생략—옮긴이 주).

---

연구소는 자기의 출판 프로그램과 기타 업무를 위해 고(故) 로널드 코스(Ronald Coase) 교수의 관대한 회사(喜捨)로부터 온 재정적 지원에 감사드린다.

## 옮긴이 후기

이 역서는 Eamonn Butler, *An Introduction to Capitalism*,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18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잘 모른다. 이 책은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지만, 이 책에서 버틀러 박사가 잘 밝히듯이, 엄밀히 말하면 두 개념은 구분된다. 자본주의는 생산에 관한 것이고 시장 제도는 분배(흔히 경제학자들이 배분이라고 말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생산과 관련된 자본주의와 분배와 관련된 시장은 서로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두 개념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말은 사적 소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가 반드시 사적 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사적 소유에 의해 최상으로 작동한다는 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기와 관련 없는 것으로 많은 비난을 받는다. 임금 체계와 계급 분할, 독점, 착취, 탐욕 등이 그러한데, 이러한 것들은 자본주의에 본질적이지 않거나 고유하지 않은 것들이다. 이윤과 경쟁처럼, 개념을 오해하여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것들도 있다. 경제

에서 자본의 크기보다 자본재들의 구성이 중요하건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혼동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본주의를 연고주의와 결부시켜서 비난하기도 한다.

흔히 연고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연고 자본주의는 기업, 혁신, 생산성, 자유 시장, 경쟁, 소비자 수요에서 거리가 멀다. 또 연고주의는 오히려 사회주의 사회들에 훨씬 더 많다. 거기에서는 국가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여 정치인들과 관료들을 매수하여 얻을 것이 더 많다. 따라서 연고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버틀러 박사의 말처럼, 오히려 연고 사회주의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부를 확산시키고, 생활 수준을 제고하며, 번영을 가져온다. 자본주의는 효율과 진보를 위한 길이다. 자본주의를 실천한 국가들은 잘 살게 되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동기에 근거하여 자본주의를 비난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모든 체제들 가운데서 가장 도덕적인 체제이다.

자본주의에서 인간관계들은 강제되지 않고 자발적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남에게 훌륭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이때 정부 권력의 유일한 역할은 개인들의 자유들과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는 자본재를 소유해서도 그 사용을 지시해서도 안 된다. 자본주의에서는 이와 같이 경제와 국가 사이에 분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책에서 언급되듯이, “... 역사의 슬픈 교훈은 공무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지도 더 윤리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다. 참으로, 국가 권력은 그것을 전개할 사람들 가운데서 최악의 사람들

을 끌어들이어서, 그들이 더 큰 실수들을 할 수 있게 한다.”(p. 130) 이러한 현상은 정치인들이 자본주의를 모르고 실천하지 않아서 일어난다.

그러나 정치인들만 탓할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뽑았다.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 체제도, 무솔리니의 파시즘 체제도, 레닌과 김일성의 공산주의 체제도 애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만들어졌다. 이러한 체제들을 국민들이 지지한 것은 국민들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자본주의 이해 수준이 낮아 시장을 불신하고 정부를 맹신한 결과다. 이 책이 국민들의 자본주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자본주의와 관련,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다. 역자는 고등학교 시절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영어를 배웠다. 그때는 중등 교육이 지금처럼 사회주의화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 학교 교육은 전 산업 분야 가운데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분야가 되었다. 그때는 학생들이 지금처럼 학교에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의 효율이 발휘될 여지가 있었다. 그 결과 진주고등학교는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셨고 학생들에게 관심도 많이 기울어졌다. 그 중에는 역자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김홍안 선생님도 계신다.

자본주의에서의 자선은 복지 국가에서의 퍼주기 복지와 성격이 다르다. 역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하여 등교 정지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여러 곳의 손길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선생님도 포함된다. 약소해서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어느 사장님이 책 사보라고 주신 것이라 하시면서 당시로서 큰돈인 1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셨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그것이 선생님께서 주신 돈이 아닐까 생각하곤 했지만, 끝내 여쭙보지 못했다. 그 사연이 생각날 때는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역자는 시장 경제, 자유주의에 관한 역서들을 발간해 왔다. 이 책은 40번째의 역서다. 숫자상 고비를 넘는 이 역서를 역자는 고등학교 은사님이신 김홍안 선생님께 바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번역 출판과 관련하여 감사할 분들을 언급하고 싶다. 변함없이 흔쾌히 번역 출판권을 주신 영국의 경제문제연구소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동 연구소의 학술·연구 부(副)이사 리처드 웰링스(Richard Wellings) 박사 그리고 계약 실무를 처리해 주신 동 연구소 EPICENTER 이사 애덤 바사(Adam Bartha)에게 감사드린다.

2020년 4월 15일 옮긴이 씀

## 옮긴이에 대해

황수연은 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정년퇴직하였으며, 한국하이테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과, 경성대학교 재직 중 애리조나 대학교 경제학과(1991년[폴브라이트 교환학자], 1997년),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공공선택연구소(2004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2013년)에서 교환 교수로 연구하였다. 공공선택론,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주의 분야의 책을 다수 번역하였다. 이 역서들에는 에이먼 버틀러가 쓴 《공공선택론 입문》,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입문》, 《자유 사회의 기초》,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축약된 국부론》, 《애덤 스미스 입문》, 《아인 랜드 개론》과 버틀러가 한 장(章)을 쓴 《초보자를 위한 자유의 길잡이》가 포함되어 있다.